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기관지

FAITH &
LIFE

심장과 삶

3+4

MAR + APR

2023 vol.23



특집 빈곤과 교회의 역할

사람사이 유원식 희망친구 기아대책 회장

월간 시론 '영광의 시대'를 소망하며

문화로 세상 보기 '아웃사이더'로 떨어지는 길을 봉쇄하라!

ISSN 2671-8731

Contents

MARCH + APRIL · 2023

시선

교회가 가난해져야 | 손봉호 02

편집장의 말

“이웃의 가난은 나의 수치”라는 말을 새겨봅시다 | 신국원 04

특집

빈곤과 교회의 역할

가난한 자를 위한 정의, 가난한 자를 위한 교회 | 우택주 06

빈곤과 교회의 역할 | 김태환 08

교회의 회개와 실천이 빈곤 극복의 열쇠 | 남기엽 10

영혼의 보석을 발견하는 이들 | 윤진수 12

돈의 코이노니야를 믿사오며 | 문지웅 14

청년 주거공동체를 통한 디딤돌 | 김유준 16

청년에게 '빈곤'은 어울리지 않는 수식어입니다 | 김재광 18

빈곤과의 '사림'을 제안하며 | 손의섭 20

사람 사이

유원식 희망친구 기아대책 회장 22

섬김의 자리에서

오병이어를 내어놓는 아이처럼 | 석종준 26



2023. 3+4월호 | 제23호(통권 238호)

〈신앙과 삶〉은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기관지로서 회원 간의 교제와 나눔의 장으로, 우리 시대 문화와 사회의 정신적 토대를 성찰하고, 그 안에 배어 있는 반기독교적 요소들을 경계하며, 기독교 세계관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쓰임 받고자 합니다.

후원 국민은행 602-01-0667-971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청년, 삶을 고민하다

청년 시론	
‘영광의 시대’를 소망하며 고의천	28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주님 이예원	30
청년일터이야기	
은혜로 감당하게 하시는 삶 조은서	32

문화로 세상 보기

영화를 보다	
‘아웃사이더’로 떨어지는 길을 봉쇄하라! 추태화	34
미술을 보다	
타자와의 대화와 교감 : 화가 요제프 이스라엘스의 경우 서성록	36
책을 보다	
읽는다는 것과 산다는 것 전현철	38
사람 사는 세상을 사랑합니다 양은주	40
한국교회의 문제와 대안에 대한 살아있는 이야기 강성호	42
학문과 삶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책 김다빈	44
하나님이 주신 선교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그들의 이야기 김은진	45



교회 路

사랑의교회 청년부 기독교세계관학교 소개 이기호	46
소감문 : 마치 센서가 장착되어 알람이 울리듯이 분별할 수 있도록 이연주	47

온전한 지성

헤르만 도어베르트의 기독교 세계관(2) - 성경적 창조론 최용준	48
제4회 기독교대학원생 독서 나눔 콘서트 그리스도인, 인공지능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50

소식

사무국 소식	52
관련기관 소식	53
재정보고/후원자보고	54



교회가 가난해져야

손봉호 (서울대 명예교수)



UN은 2015년에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의 제1호를 '빈곤퇴치'로 정했다. 인류의 10%는 하루에 미화 1불 40센트 이하로 생활하는 절대빈곤에 시달리고 있고, 선진국에도 상대적 빈곤이 대부분의 차별과 고통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도 절대빈곤은 극복했지만 상대적 빈곤율은 OECD 평균 11.1%보다 높은 16.7%로서 37개국 중 4번째다.

돈이 모든 가치의 척도가 되고 빈곤이 모든 고통의 뿌리가 되어버린 세상에서 빈곤은 인류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가 되었다. '사회적 약자'는 곧 '가난한 자'다. 그리고 사람의 삶이 대부분 인공적이고 조직화된 오늘날에는 빈곤 문제를 개인의 의지와 능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게 되었다. 어떤 것이든 외부의 도움이 있어야 하는데 선진국들은 복지제도로 이를 해결하려 한다.

모든 고등종교는 약자 보호를 가르치고 성경은 구제를 선교와 함께 교회의 기본임무로 취급한다. 예수님 사역의 절반은 구제였는데 교회도 마땅히 그 머리가

신 주님의 사역을 이어가야 한다. 실제로 초대 예루살렘교회에는 구제로 가난한 자가 없게 되었고(행 4:34), 안디옥 교회, 아가야와 마케도니아 교회들도 구제했으며(행 11:29-30, 고후 8:2),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사였지만 구제도 힘썼을 뿐 아니라(갈 2:10, 행 20:35, 행 4:36-37), 바울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구제활동을 감행했다(행 21:10-14, 행 24:17, 롬 15:25-27). 구약성경에도 가난한 자를 돌보라는 명령이 무수하고, 신약성경에 언급되는 연보는 모두 구제를 위한 것이었다. 서구에서는 국가복지제도가 도입되기 전, 교회가 빈자들의 복지를 책임졌다. 칼뱅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자로 만든 것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려는 것이라 주장했고, 루터는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은 약자들을 돕기 위함이라고 가르쳤다. 한국의 초대교회도 구제에 모범적이었고, 그것도 교회 성장에 어느 정도 공헌했다.

그런데 최근 한국 교회는 성장에 몰두하므로 구제를 무시해서 직분을 맡은 자 대부분이 자신들의 성경적 임무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 다만 가난한 나라들을

위한 대표적 구호단체 23개 가운데 17개가 개신교에 뿌리를 둔 것은 감사할 일이다. 앞으로 경제 수준이 높아져서 사회복지가 확대되면 교회의 구제는 필요 없게 되므로 사랑 실천의 기회가 없어질 것이다.

가난에 대한 교회의 접근은 세상과 달라야 한다.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죽한 줄로 안” (딤후 6:8) 예수님과 사도들처럼 교회도 가난해져야 한다. 없어서가 아니라 있는데도 자발적으로 가난해져야 한다. 서울 강동구에 있는 ‘빛소금교회’는 성탄헌금 전액(1600만 원)을 샘물호스피스에 헌금했고, 부활절 헌금 전액(2000여만 원)을 가난한 환자를 위해서 복음병원에 헌금했다. 정책적으로 예배당 건물을 갖지 않기 때문에 가능했다. 베버(Max Weber)는 종교개혁자들이 ‘세계내적 금욕’을 실천했다고 지적했다. 검소와 절약이 개신교의 중요한 전통이다. 넉넉하고 사치스러운 자리에서 굶고 헐벗은 사람에게 한 톨 던져주는 것은 가난한 자에 대한 모독이며 예수님에 대한 불경이다. 약한 자에게 하는 것이 곧 주님께 하는 것이다. 절약을 포함한 절제는 성령의 열매 중 하나인데, 특히 말세에 불신자들과 같이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수적인 덕목이다. 베드로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 해야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질 수 있고, 그래야 이방인들이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수 있다 했다(벧전 2:11-12). 독일 신학자 그룬드만(W. Grundmann)은 헬레니즘이 장려하는 절제는 자신의 도덕적 수월성을 위한 것이고 성경이 가르치는 절제는 이웃을 위한 것이라고 정확하게 지적했다. 특히 환경오염으로 파키스탄이나 몽골처럼 가난한 나라들이 그 피해자가 되고 있는 오늘날에는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소비를 줄임으로써 온난화를 막아야 가난한 사람들과 가난한 나라들의 고통을 줄일 수 있다.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정의의 실현이므로 시혜가 아니라 의무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시 146:7).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고후 8:13). 어떤 사람은 굶고 헐벗는데 그들을 먹일 수 있는 돈을 사치에 허비하는 것은 정의에 어긋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개들에게 던져주는 잘못이다. 예수님은 과연 굶고 아픈 사람은 버려두고 예배당을 화려하게 짓는데 돈 쓰는 것을 기뻐하실까?

곳곳에 교회가 있는데도 송파 세 모녀, 수원 세 모녀 동반 자살 사건이 일어났고 그것에 대해서 자성 운동조차 일어나지 않은 것은 한국 교회의 부끄러운 민낯이다. 율법을 빈틈없이 잘 지킨 부자 청년에게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라”(눅 18:22) 하신 예수님은 한국 교회를 향하여 “네게 있는 예배당은 팔지 못하더라도 헌금의 십일조라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하시지 않을까 한다.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고는 땅에 떨어진 한국 교회 위상이 결코 회복될 수 없다. FAITH & LIFE



글쓴이 손봉호



(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명예 이사장이다. 서울대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네덜란드 자유대학교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한국외대, 서울대 교수를 거쳐 동덕여대 총장과 세종문화회관 이사장, 기아대책 이사장을 역임했다. 도산인상, 국민훈장 모란장, 서울대 사회봉사상 받았으며, 현재 서울대 명예교수로 섬기고 있다.

“이웃의 가난은 나의 수치”라는 말을 새겨봅시다

신국원 (<신앙과 삶> 편집장)

평안하셨는지요! 이번 호의 주제는 ‘빈곤과 교회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빈곤 문제가 해결되기보다 악화 된 것은 역설 중 역설입니다.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 한다”라는 말로 변명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한 철학자는 오늘의 빈곤은 정의의 결여에서 비롯한다고 지적합니다. 충분한 식량이 있음에도 아사자가 나오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의 가난은 나의 수치”라는 프랑스 빈민운동가 ‘피에르 신부’(Abbé Pierre, 1912~2007)의 말은 마음을 찢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어쩔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적선하듯 한두 톨 구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성경은 빈곤의 문제를 사회정의의 차원에서 다룹니다. 구약성경의 십계명은 가난한 이웃을 돌보는 법을 제도적으로 구축할 것을 가르칩니다. 살롬은 공의와 평화의 만남으로 묘사합니다. 예수님은 아예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주라고 하십니다. 정통 교회는 처음부터 긍휼과 구제를 ‘디아코니아’(섬김)라고 부르며 교회의 본질로 여겼습니다.

<시선>은 빈곤의 문제를 세상과 다른 관점에서 접근할 것을 요청합니다. 적선하듯 하는 구제는 가난에 대

한 모욕이고 주님에 대한 불경이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이웃을 위한 절제를 통해 빈곤의 문제를 돌보지 않고는 떨어진 위상을 회복할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특집>에선 우택주 교수님이 구약의 정의가 구제와 맞닿아 있음을 강조하며 가난한 이들을 돌보이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힘써야 할 일임을 알려줍니다. 김태황 교수님은 부당한 사회구조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빈곤의 족쇄를 잘라내는 영적 자유를 공유해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남기업 소장님은 빈곤과 불평등이 영적인 문제이며, 해결은 교회가 상호돌봄공동체의 사명을 회복하는 데 있다고 합니다.

윤진수 목사님은 노숙인 사역에서 직접 경험한 감동적 사연을 통해 교회와 우리의 할 일을 깨우쳐줍니다. 문지웅 목사님은 청년 빈곤 문제와 교회 선교를 연결한 무이자 무담보 대출을 운영한 경험을 나눕니다. 김유준 목사님도 청년대학생 주거공동체 사역의 사례를 통해 교회가 새로운 사역의 지평을 넓혀야 함을 깨우쳐줍니다. 김재광 센터장님은 청년 부채 해결을 위한 ‘희년은행’ 사역의 예를 들어 우리의 안목을 넓혀줍니다. 손의섭 형제님은 일본의 홈리스 문제에 대해 한인교회가 했던 돌봄 사역이 준 교훈을 소개합니다. 홍승현 교수님이 만난 ‘희망친구 기아대책’의 유원식 회장님은 왜 빈곤의 문제가 우리가 섬김의 역량을 확

대해 나가야 할 부분인지를 알려줍니다. 교회의 섬김이 '파이프라인'처럼 녹슬지 말고 세지 않고 양방향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 깊이 와닿습니다. <섬김의 자리>에서는 석종준 선교사님이 우리 동역회를 섬겨 오신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간의 많은 봉사를 누군가를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려 드린 작은 은사의 오병이어라고 겸손해하시네요.

고의천 선생님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영광의 시대는 언제였고 그것을 위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묻습니다. 이에원 자매님은 학업과 신앙을 통합시키는 노력의 과정을 나눕니다. 조은서 자매님은 연구기관의 직장생활과 교회 봉사의 조화를 위해 애쓴 경험을 소개합니다.

<영화를 보다>에서 추태화 교수님은 OECD국가 중 행복지수 최하위의 한국인의 주거환경을 그린 블랙코미디 영화 <홈리스>를 소개합니다. 전세 사기를 당한 부부가 아웃사이더로 밀려버린 사회의 공정 문제에 대한 고발입니다. <미술을 보다>에서 서성록 교수님은 미술인이 이웃과 대화하며 교감하는 모습을 조명합니다. 특히 약자에 대한 관심이 빛나는 네덜란드의 화가 요제프 이스라엘스의 작품 해설이 돋보입니다.

<책을 보다>에서는 동역회 회원들의 근간이 소개됩니다. 정병오 선생님 등의 <읽다 살다>는 전현철 목사님이, 편집위원으로 많은 수고를 하는 이상민 선생님이 실행위원장 박동열 교수님과 함께 쓴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2>는 양은주 선생님, 이연우 목사님의 <피로교회를 넘어 필요교회로>는 강성호 목사님이 서평 해주셨습니다. 대전 '새로남교회'의 특별 기획으로 출간된 <과학자, 하나님을 만나다>와 <공직자, 하나님을 만나

다>는 김다빈 형제님과 김은진 자매님이 소개합니다. <교회로>에서는 사랑의교회 청년부의 기독교세계관 학교를 소개합니다. 20대에 다짐했던 신앙을 30대에 일터와 가정과 섬김에서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를 돕는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년 1~2차례 운영하는 과정으로, 여러 주제로 이어온 과정을 이연주 자매님의 참여 소감문과 함께 소개해주셨습니다.

<온전한 지성>에서는 최용준 교수님께서 기독교 철학자인 헤르만 도여베르트의 성경적 창조론을 집중 조명해 줍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의미 그 자체라는 설명을 통해 만물이 창조주이시며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의존해 있음을 강조합니다. 아울러 이들에 걸쳐 처음 대면으로 만난 대학원생 독서나눔 콘서트가 소개됩니다. '그리스도인, 인공지능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를 주제로 열린 토론과 나눔, 그리고 사권의 시간을 가졌다는 반가운 보고입니다.

편집을 마치면 항상 감사의 마음이 가득합니다. 이번에도 한결같은 헌신으로 인터뷰를 해주시고 글을 써주신 분들과 편집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호도 우리 모든 동역자님의 신앙과 삶에 주님께서 주시는 격려가 되길 소망합니다. **FAITH & LI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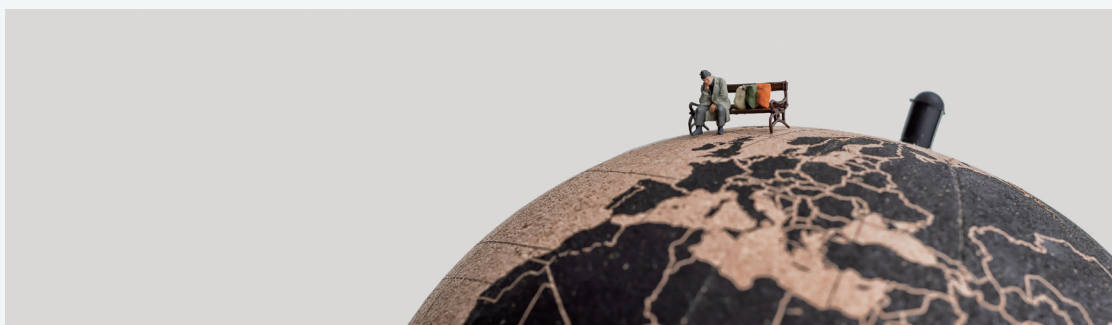


✍ 글쓴이 신국원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장이자 동역회 기관지 <신앙과 삶> 편집장이다. 총신대와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M.Div, Th.M)했고, 캐나다 기독교학문연구소(ICS)와 네덜란드 자유대학교에서 문화철학을 전공해 박사학위(Ph.D)를 받았다. 총신대 명예교수,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초빙교수, 삼일교회 협동목사로도 섬기고 있다.

가난한 자를 위한 정의, 가난한 자를 위한 교회

우택주 (한국침례신학대학교 구약학 교수)



구약성서에서 ‘정의’(מִשְׁפָּט, 미쉬파트, mišpāt)는 구제적 현장에서 항상 사회적 빈곤층과 관계가 있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 후 시내 산에 당도하여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할 때 가장 먼저 등장한 법은 종살이하는 사람들을 칠 년째 풀어주라는 것이었다(출 21:2-6; 신 15:12-18). 이어서 레위기는 경제적 이유로 상실한 토지소유권은 50년째 복귀시키라는 법(레 25장)을, 신명기는 농가의 채무를 일곱번 째 년 탕감해주라는 법(신 15:1-11)을 추가한다. 고대 이스라엘이 군주체제 아래 있을 때 상당수 농민은 채무로 고통받거나(왕상 17:8-16; 왕하 4:1-7), 채무불이행으로 법정에서 쫓겨 재산과 땅을 빼앗기고 가족이 해체되는 아픔을 겪었다(미 3:1-4; 2:1-2, 9; 암 2:6b-7a).

주전 8세기 예언자 이사야는 소위 ‘포도원의 노래’에서 “무릇 만군의 여호와와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미쉬파트)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학(미쉬파

흐)이요 그들에게 공의(체다가)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체아카)이었던도다”(사 5:7)라고 노래했다. 주전 7세기 예언자 하박국 역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미쉬파트)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의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미쉬파트)가 급게 행하여짐이라”(합 1:4)라고 탄식했으며, 남 유다가 멸망할 즈음에 활동한 예레미야는 “너희가 만일 정의(미쉬파트)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매 내가 이 성읍 예루살렘을 용서하리라”(렘 5:1)라고 선포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는 가난한 자가 끊이지 않았다.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 백성의 나라를 심판하는 이유는 가난한 자에게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정의의 법이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한다.

8세기의 미가는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미쉬파트)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6:8)라고 선포했

다. 그의 어투에 나타난 정의 역시 윤리와 도덕적 행위를 추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채무 농민 즉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겨 그들의 채무를 탕감해주거나 종의 신분으로 사는 백성에게 자유를 주는 조치 등의 실행을 담고 있다. 미가에 의하면, 당시 부유층은 일회적이고 과시적으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은 노심초사했으나, 정작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인적 조치에는 경제적 이해득실을 따져 지극히 인색하게 구는 경향이 있었다.

다윗 왕의 통치를 이상적 모델로 삼은 메시아 대망의 말씀들은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판단)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메시아(사 11:4)를 기다린다. 이렇게 의로운 왕 메시아가 오기를 희망하는 말씀들도 가난한 자에 대한 정의(미쉬파트) 구현을 언급한다. 예수의 오심을 메시아 대망의 성취로 이해하는 우리 교회가 가난한 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탐구하는 일은 참으로 아이러니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구약성서가 언급하는 정의는 언제나 힘없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조치와 맞닿아 있다. 그리고 그런 조치를 명시한 율법들은 출애굽 구원의 경험에서 우리나라 온 것이고 언약 백성의 미래를 결정하는 삶의 태도로 제시되어 있다. 구약성서의 정의는 “가난하고 무능하여 상처 입은 자를 구제하고 구원해 주는 일”을 가리킨다. 따라서 가난으로부터 구원해 주는 정의가 구약성서의 핵심이다. 그것은 영혼 구원이나 영적 구원에 머물지 않는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현실의 삶이 뒤따르지 않는 신앙과 구원도 무의미하다.

누가복음이 묘사한 예수의 공생애는 나사렛 회당에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을 부으셨다”(눅 4:18)라는 말씀 선포로 시작한다. 가난한 자에게 전할 복음 즉 기쁜 소식이란 그들을 구제하기 위한 율법에서 명시한 각종 조치를 내포한다. 비록 마태복음은 이 가난한 자를 “심령이 가난한 자”로 변형시켰지만 가난한 자는 예나 지금이나 항상 우리 주변에 존재한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구현을 목적 삼고 예수의 지상 사역을 대리하는 조직이라면 교회 구성원 가운데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구제하는 일은 이집트에서 혹독하게 종살이하는 이스라엘에 해방과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신 속성과 맞닿아 있다(출 3:7; 호 2:1). 가난한 자의 구제는 교세 확장 여부와 상관없이 교회를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DNA이다. 구제 사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교회 사업의 일부가 아니다. 그것은 교회의 본질이다. 그런 의미에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교회의 모습은 이 세상에 예수 복음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파할 수 있다. 그런 교회가 ‘정의’(미쉬파트)를 실현하는 교회이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증언하는 교회이다. **FAITH & LIFE**



글쓴이 우택주



한국침례신학대학교 구약학 교수이다. 한양대 공대를 졸업하고 서울신학대학원(M.Div),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Th.M), 뉴욕 유니온 신학교(S.T.M), 버클리 신학대학원 연합(GTU)에서 박사학위(Ph.D)를 받았다. 저서로는 <미가>, <21세기 한국 개신교회를 위한 구약신학>, <성서 히브리어의 기초>, <8세기 예언서 이해의 새 지평>, <구약성서와 오늘 1>, <구약성서와 오늘 2>, <모두가 예언자가 되었으면>, <요나서의 숨결> 등이 있고, 번역서로는 <성서의 처음 역사>, <여로보암과 혁명의 역사>, <신명기 역사>, <태초에: 창조와 제사장 역사>, <페르시아 시대의 구약성서> 등이 있다.

빈곤과 교회의 역할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차지하는 복을 누린다(마 5:3). 물질이 가난한 자는 어떻게 될까?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에게 마지막 남은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으로 만든 음식을 섭취한 후 가난한 그 모자에게 물질적 풍요를 안겨주었는가? 엘리사 역시 과부가 된 제자 미망인과 두 아들에게 기름을 채워줘서 빛을 갠고 남은 것으로 생활하도록 이적을 베풀었다. 그 후 이들은 부자가 되었는가?

유엔(UN) 자료에 의하면 2018년 기준으로 7억 8천만 명은 하루에 1.9달러 미만의 극빈 상태에서 살고 있다. 세계 인구의 10% 수준이다.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의 약 10%도 동일한 수준의 극빈층이라고 진단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빈곤율은 2011년 18.6%에서 2020년 15.3%로 개선되었지만, 다른 회원국들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미국(2021년 15.1%)이나 일본(2018년, 15.7%)과는 유사한 수준이지만, 그리스(2019년 11.5%), 포르투갈

(2019년 10.7%), 폴란드(2018년 9.8%) 등 대부분 유럽국가보다 높으며,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체코(2019년 5.6%)와 핀란드(2020년 5.7%)에 비하면 현격한 차이를 나타낸다. 더욱이 66세 이상 고령층의 빈곤율은 우리나라가 40.4%(2020년)로 압도적 1위이다. 일본 20.0%(2018년)의 2배, 가장 낮은 덴마크(2019년 4.3%)의 거의 10배 수준이다.

배고픔은 춥고 힘들 때 치명적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은 배고픈 자들에게 더 혹독했다. UN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국제적 빈곤 해소 노력은 4년 이상 퇴보한 결과를 낳았다고 진단했다. 이를테면 노동 빈곤율은 2019년 6.7%에서 2020년 7.2%로 20년 만에 상승했고, 결과적으로 800만 명의 근로자가 추가로 빈곤 상태에 놓였다고 분석했다. 세계은행(IBRD)도 2021년 코로나19로 인해 저소득 국가에서 휴교와 저조한 학습 성과로 학습 아동의 70%는 학습 빈곤을 겪은 것으로 추정했다.

2019년 최연소 노벨경제학상을 남편과 공동으로 수상한 프랑스 태생의 MIT 교수 에스테르 뒤플로(Es-ther Duflo)는 세계 40여 개국 빈곤층의 생활 현장을 관찰하면서 빈곤퇴치의 실험적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그들은 빈곤층의 현실적인 여건과 생각, 이에 따른 의사결정과 행동에 자율적인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빈곤의 구조적 원인을 극복할 경제적 동기부여와 실질적 보상이 주요함을 입증했다. 즉 실질적 보상을 제안함으로써 빈곤층이 의사결정과 행동에 변화를 일으키도록 유도하고, 이러한 동기부여가 빈곤의 현상적 결과를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개발도상국 빈곤층의 영유아 예방 접종률, 기초 교육 참여도, 경제활동 참여율 등을 높이기 위해서는 참여의 당위성을 홍보하기보다는 참여의 경제적 맞춤형 동기부여가 효과적임을 실증했다.

빈곤의 원인은 개인적 요소와 사회구조적 요소로 복합적이다. 성경은 게으르면 궁핍해지고(잠 6:9-11), 궁핍하지 않으려면 일하기를 힘쓰고(살전 4:12),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살후 3:11-12)고 가르친다. 하나님은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로 대변되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돌보라고 명령하신다(신 24:19-21, 신 27:19, 시 146:9, 렘 7:6). 빈곤이 개인의 게으름 때문일 수도 있지만, 자연재해나 사회적 분쟁 때문일 수도 있다. 성경은 빈곤의 원인 규명엔 매우 제한적이면서도 가난한 자에 대한 사회적 윤리와 제도적 대책은 강조한다. 이는 공동체의 존속에 불가피한 것이며, 돌봄과 공평의 원칙이 그 핵심이다.

우리 교회와 사회가 직접 가난한 자를 부유한 자로 전환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격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최소한의 여건은 보장해 주어야 한다. 돌봄의 원칙은 개인으로서는 배려이지만 공

동체로서는 책무이다. 봉쇄, 차단, 거리두기, 비대면 등 사회적 위기와 경기침체의 시기에는 더욱더 공동체의 역할과 책무가 절실하다. 소규모 지역교회는 자체로서도 생존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으니 구성원을 돌볼 여지가 없다. 그렇더라도 크든 작든 교회는 교회다워야 한다. 사회에 구원과 구제의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 가난한 자라고 해서 특혜를 받거나 불의를 누려서는 안 된다(출 23:3,6). 공평의 원칙은 어쩌면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설득력을 내포한다.

교회가 빈곤층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동기부여가 신앙의 기반에 유기적으로 접목되어야 한다. 먼저 교회는 진리의 검으로 부당한 빈곤의 축소를 잘라내는 영적 자유를 공유해야 한다. 교회는 교인이나 지역사회 이웃이 직면한 빈곤의 여건을 파악하고 이들이 사회적 소외감과 적대감을 해소하도록 소통력을 회복해야 한다. 정기적인 일용할 양식의 나눔이나 주거환경 개선의 섬김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지역사회의 공공 복지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주중 교회 시설을 활용한 소그룹 활동의 활성화는 맞춤형 경제활동의 동기부여가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빌 4:12)은 빈곤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우리의 경제적 동기부여이자 영적 보상이 될 것이다. **FAITH & LIFE**



글쓴이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이다.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학사와 파리 제8대학(뱅센느대) 경제학 석사, 파리 제10대학(남떼르대)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프랑스 유학 중 파리의 한 한인교회를 개종시키려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2015-17년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실행위원장으로 섬겼고 현재는 기독교학문연구회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100주년기념교회 장로이다.

교회의 회개와 실천이 빈곤 극복의 열쇠

남기업 (‘토지 + 자유연구소’ 소장)



물질적 풍요가 넘쳐나는 시대다. 자동차와 핸드폰과 노트북을 누구나 보유하고 있고, 해외여행도 부담 없이 다니는 시대가 되었으니 말이다. 그런데 왜 가난한 사람들은 줄지 않는 걸까? 끼니를 걱정하는 사람들, 집이 없어서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는 사람들, 심지어 노숙하는 사람들도 좀처럼 줄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다. 어디 그뿐인가. 일하고 싶지만 괜찮은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해서 절망하는 청년들과 장년들이 상당하고, 가난한 노인들도 OECD에서 가장 많으며, 노동 소득으론 미래가 불안해 불로소득을 노리는 비트코인, 주식, 부동산 갭 투기에 몰두하는 사람들도 엄청나다. 게다가 빈곤과 불평등 심화는 일국적 차원뿐만 아니라 국가 간에도 진행되고 있다.

우리는 물어야 한다. 그 원인이 뭐냐고. 빈곤과 불평등은 해결 불가능한 것이냐고. 이런 질문을 하면 늘 떠오르는 성경 본문이 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신 15:11)라는 말씀이다. 교회에는 이 구절을 근거로 빈곤은 어쩔 수 없다고 단정하는 그리스도인이 많다. 그래서 교회가 가난한 사람을 돌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구절은 “정녕 가난한 자가 땅의 소출을 누리는 데 있어서 절대로 배제되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다.¹ 그렇다. 빈곤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명확하다.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신 15:4-5).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말씀대로 살면 빈곤이 해결된다는 것이다.

1. 김희권, 〈자비 경제학〉, PCKBOOKS, 2022, 382쪽.

그렇다면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대체 무슨 뜻인가? 이것에 답하기 위해서는 성경과 역사를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을 통해서 거룩한 나라, 즉 빈부와 신분과 격차가 없는 새로운 사회를 만들고 열방이 이스라엘을 본받아 전 세계가 복 받게 하는 것이었다는 점을, 그리고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안식일, 안식년, 희년 제도를 주셨다는 것을.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법을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나라가 망했고 그 사명은 다시 예수님의 피로 새로운 계약을 맺은 교회에 맡겨졌는데, 초대교회는 이 사명을 충실히 감당했다. 그 결과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었는데(행 4:34),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실천을 박해 시대 내내 300년 동안 유지했다는 것이다. 필자가 보기에 이것은 제2의 가나안이라 할 수 있는 로마를 다스릴 권한이 교회에 주어진 상황인데, 안타깝게도 중세 교회는 구약의 이스라엘처럼 말씀을 따르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중세는 가난과 신분의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는 암흑기가 되고 말았다.

그렇다. 성경은 빈곤과 불평등 해결은 예수님의 피로 계약을 맺은 교회에 달려 있다고 말하고 있다. 우선 교회는 상호돌봄공동체가 돼야 한다. 부채에 늪에 빠진 형제의 문제를, 주거 불안에 시달리는 성도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교회가 돼야 한다. 물론 바울의 가르침대로 교회 공동체 구성원 모두는 열심히 경제 활동을 해야 한다. 하지만 불로소득을 노리는 경제 행위는 이웃을 고통스럽게 하는 ‘죄’라는 점도 분명하게 가르쳐야 한다.

그러나 교회는 여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 정부에게 빈곤의 원인을 제거하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그 문

제와 씨름하는 단체와 능동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이렇게 교회가 상호돌봄공동체가 되고 빈곤과 불평등을 낳는 사회적 불의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셔서, 이 나라의, 나아가서 전 세계의 빈곤과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해주시는데, 이렇게 믿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물론 교회의 이 사명 감당은 철저한 회개가 전제되어야 한다. 사명을 망각했고 그토록 오랫동안 하나님의 법을 무시해왔으며 불법을 마구 저질렀다는 것을 말이다. 그런 까닭에 국내적·국제적 차원의 빈곤과 불평등 해결은 결국 영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다 **FAITH & LIFE**



✍ 글쓴이 남기업

‘토지 + 자유 연구소’(landliberty.or.kr) 소장이다.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고, 동대학원 박사과정에서 논문 〈헨리 조지의 대안적 경제체제 연구: 소유의 정당성, 경제적 효율성, 환경친화성에 관한 비교 검토〉(2005)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2005~2006)을 역임했고, 현재 ‘희년함께’ 공동대표(2010~)로도 섬기고 있다. 저서로 〈공정국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모델〉(2010), 〈토지정의 대한민국을 살린다〉(공저, 2012), 〈헨리조지와 지대개혁〉(공저, 2018), 〈희년〉(공저, 2019), 〈아파트 민주주의〉(2020), 〈불로소득 환수형 부동산 체제론〉(2021) 등 외 다수가 있다.

영혼의 보석을 발견하는 이들

윤진수 (삼일교회 서울역 노숙자 담당 목사)

따뜻한 도시락을 들고 처음 서울역으로 향했던 날, 차가운 칼바람을 종이 박스로 막으며 침낭을 뒤집어쓴 채 노숙인들이 잠을 자고 있었다. 그리고 또 한 구석에서는 술 파티가 벌어지고 있었고 술에 만취한 한 남성 노숙인이 갑자기 우리를 향해 욕을 하기 시작했다. 봉사하러 오신 분들이 인상을 찌푸리며 모두 귀를 막았다. 도무지 들을 수 없는 말이었고, 그날은 거기서 사역을 멈추고 복귀를 결정했다. 그때 나는 이대로 가면 앞으로 계속 반복될 것 같아 혼자 남아서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마음을 먹고, 한 걸음씩 그에게 다가갔다.

그런데 가까워질수록 더 심한 욕설을 하였다. 신기하게도 욕 세례를 퍼부으며 무섭게 거친 행동을 하는 그분을 보면서 두려움보다 공허한 마음이 생겼다. 그래서 자세를 낮추고 눈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을 걸기 시작했다. “저는 아저씨를 돕고 싶습니다. 전 목사예요. 하나님은 아저씨를 아주 많이 사랑하세요. 하나님 사랑을 아저씨에게 나누어 드리고 싶습니다. 아저씨가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고 싶어요. 진심입니다.”라고 계속 말하였다.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침을 튀기며 욕을 하시던 그 아저씨가 갑자기 말을 그치고,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해지더니 제 품에 안겨 울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살려 주세요. 저도 살고 싶습니다.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도와주세요. 살려 주세요!”

나는 사실 품에 안겨 우시는 분이 여전히 무섭고 어색했지만, 그 고백에 정말 놀라워하며 안아드리고 기도를 해 드렸다. 그 순간 저는 연약한 인간의 죄의 그늘 속에 가려져 웅크려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보았고, 이 사역의 사명을 깨닫게 되었다. 노숙인 사역은 옷과 밥과 주거지 등 무엇을 마련해 드리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세상의 모든 편견을 뚫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위해 십자가 사랑으로 그들을 끌어안는 영적인 일이라는 것을 말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형상을 회복하려면 무엇보다 눈높이를 같이 하는 공감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도 깨달았다. 이분들이 진정으로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의외로 진실하고 순전한 사랑이고 그 따뜻한 구원의 손길을 열렬히 갈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첫 발걸음의 현장에서 깨닫게 되었다.

매주 화요일 저녁마다 서울역에 나가 도시락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다 보니, 노숙인들이 매일같이 삼일교회로 몰려왔다. 새벽에 식사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300~400명에 육박하였다. 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분들에게 진정한 생명의 양식임을 처음부터 깨닫게 하셨기에 식사 후 예배도 함께 드리게 되었고, 수요일예배, 금요일예배, 주일예배 등 노숙인분들이 환대받으며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공간도 마련하

였다. 복음은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만이 아니라 삶의 영역까지 순종하게 되는 총체적인 것이다. 이것을 하루하루 사역 속에서 동역자들과 함께 깨닫게 되면서 이분들과 삶 전반을 같이 하게 되었다.

지금은 옷과 밥을 나눠 주는 것 외에 고시원을 운영하면서 임시주거지를 마련해 드리고, 임대주택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 발품을 팔고, 전인적 회복을 목적으로 매 학기 10여 개 반의 주간 자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또한 정서적인 치유와 경제적 자립을 위해 농장운영과 카페도 경영하면서 그분들이 손 놓고 계셨던 꿈을 다시 가질 수 있도록 섬기고 있다. 갑작스레 몰려온 이분들을 위해 교회가 식당과 예배, 각종 모임 공간을 내어주며 환대하는 모습은 서울역 사랑나눔부의 담당 목사인 저로서도 놀라운 배려와 은혜가 아닐 수 없다. 성도들의 이 아름다운 섬김과 사랑은 2019년 한 해 동안 세상에 이웃이 되어야 한다는 교회의 나아갈 방향성을 줄기차게 강단에서 말씀을 나눠주셨던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었다.

청년 사역을 내려놓고, 지금까지 5년의 짧은 기간을 이분들과 함께하며 두 가지 사실을 명확히 깨닫게 된다. 먼저는 십자가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면 결코 진실한 사랑을 할 수 없고, 죄에 휩쓸려 표류하는 영혼을 살릴 수 없다는 사실이다. 욕을 듣고, 뺨을 맞으며, 기물들이 내동댕이쳐지는 일들을 수없이 볼 뿐 아니라 주민센터와 병원과 법원과 구치소를 오가며 온갖 행정적 돌봄을 감당해야 하는 일들, 그리고 반복되는 중독의 문제로 변화가 보이지 않아 끝없는 절망의 감정들을 경험하면서도 예수님을 떠올리며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뚜벅뚜벅 한 걸음씩 내디뎌야 하는 일. 이 모든 일은 어찌 보면 견디기 어려운 험겨운 순간들이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십자가

를 묵상하며 감당해 갈 때 이들의 아주 작은 한 눈금 이 자라가는 것을 보게 된다. 누군가의 시간과 건강과 물질의 희생과 포기가 없이는 도무지 영혼이 자라갈 수 없다는 말씀(요 12:24)이 진리임을 확신하게 된다.

이 순종의 행렬은 복음을 누리는 자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며 능력이다. 복음이 없는 이들은 상상할 수 없는 섬김이다. 그리고 또 깨닫게 되는 한 가지는 섬기는 자들의 축복이다. 처음에는 봉사자들 자신이 섬기는 줄로 생각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얼마나 자신이 사랑 없는 자인지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처절하게 붙들게 되며, 점점 자신의 성품과 마음도 연단되고 결국 주님께 가까이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자신이 얼마나 사랑 없는 죄인인지 깨닫고, 주님 곁에 머무르게 되는 이것이 가장 큰 복이 아닐까 생각한다.

삼일교회가 서울역 근처에 있어 이 귀한 사역 한 모퉁이를 섬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진행하고 있는 복지법인 '헤세드'가 잘 세워져 세상에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먹고, 입고, 자고, 일하고, 예배하며, 선교하면서 예수 안에 한 가족이요 교회 공동체로서 같이 살아갈 아름다운 날을 매일 꿈꾸고 있다. 고치고 변화시키려 하기보다 용납하고 포용하며,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충분히 존중받고 사랑받으며 회복되는 그 놀랍고 뜨거운 사랑 공동체로 빚어지기를, 그렇게 소외된 이웃들에게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기도한다.

FAITH & LIFE



글쓴이 윤진수



삼일교회 부목사로 청년들을 5년간 섬겼다. 현재는 '공휴위원회'를 담당하고 있으며 서울역 노숙인들과 소외된 이웃들을 섬기기 위한 복지법인 '헤세드'를 준비하고 있다.

돈의 코이노니아를 믿사오며

문지웅 (보성교회 담임목사)

세월호와 대통령 탄핵을 거쳐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들어와서 교회의 존재 이유에 대한 심각한 질문이 송곳처럼 예사롭지 않게 제기되고 있다. 교회는 세상에서 “남을 위해 존재하는 유일한 기관”(본회퍼)이라고 하지만 한국의 시민사회는 과연 교회가 그러한지에 대한 무거운 의심을 하고 있다. 성찰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가 사익추구의 제의적 종교가 되어버렸다면 이런 교회는 하루라도 빨리 해체하고 새로운 대안적 교회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청년층의 교회 이탈이 가파르다. 청년 사이에서도 올바른 정신을 가졌다면 현재의 낙후된 도덕적 수준의 교회에 가는 것이 상식과 합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정의의 실현’과 ‘은총의 전파’라는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교회가 어떻게 하면 청년들에게 다시 선택을 받을 수 있을까? 교회가 무엇을 하면 청년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을까? 청년의 빈곤 문제와 교회의 선교와 연결해 볼 때, 청년 없이 국가의 미래 없고, 청년 없는 교회의 내일은 불가능하다는 신념으로 교회가 청년 돌봄의 첨병 역할 내지는 전위적 실천을 해야 한다. 나는 23세부터 모(母) 교회에서 첫 사역을 청년부에서 시작했고, 중국 선교사 14년 동안에도 한족 청년을 목회자로 세우는 신학교 사역을 한 적이 있다. 그리고 7년 전에 청년 중심의 교회를 개척했다가 지금은 이

개척 교회와 60년 된 지역교회가 합병(통합)하여 담임목사로 섬기고 있다. 나의 32년 사역은 거의 청년들과 함께 한 시간이었다.

내가 청년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울고 웃고 그들의 내 부자가 되어 발견한 것은, 결혼이 베풀어 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출산과 육아는 빈곤 청년들에게는 그림의 떡이거나 아예 체처둔 주제라는 것이다. 마음은 원이로되 돈이 없어 포기하는 것들이 많다면 교회는 우는 자들과 어떻게 함께 울어 줄 수 있을지 고민했고, 마음의 위로를 넘어서는 그 무언가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

이제는 교회가 돈으로 말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돈으로 말하는 청년 선교의 첫 번째 주제는 ‘청년 대상 무이자 무담보 대출’이다. 그래서 마침내 교회 구성원이 조합원이 되는 조건으로 ‘고엘뱅크’라는 신용협동조합 형태의 은행을 설립했다. 이 조합은행은 무이자 무담보 대출을 설립 초기부터 시행했으며 7년째 계속 운영되고 있다. 2023년 3월 현재 조합원 64명, 대출 총 77건, 대출받은 조합원 총 33명, 대출 총액 약 1억 1천 4백만 원이다. 대출 항목으로는 학자금과 주거비가 많았고 의료비, 생활비, 여행경비, 수리비, 창업자금 등이었다. 회년 은행같이 비영리단체의 대출 사업은 있지만 특정한 지역교회에서 독립적인 신용협

동조합 형태로 청년 대출을 해 주는 곳은 극소수다.

청년 중심의 개척 교회 때의 예배 순서에는 공동기도문을 함께 소리 내어 읽으며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다. 공동체가 함께 신앙고백을 기도로 표현하는 자리였다. 청년의 빈곤 문제를 진지하게 바라보며 몸과 돈으로 격물(格物)하는 신앙을 표현하려는 고민이 공동기도문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공동기도문 가운데 〈산상수훈 기도문〉을 먼저 소개해 보겠다. 1. 성취와 자기중심성을 버리고 심령이 가난한 공동체 되게 하소서 2. 이웃의 슬픔과 사회의 갈등에 위로와 평화를 주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3.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을 통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4. “예”하면 “예”, “아니오”하면 “아니오” 하는 정직한 말과 실천을 하게 하소서 5. 하나님의 부름 받은 백성으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소서 6. 시간과 물질을 나눌 때 먹이시고 입히시는 주님을 보게 하소서 7. ‘나’를 위한 기도보다 ‘너’를 위한 기도를 하게 하소서 8. 먼저 찾아가 죄를 용서하게 하소서 9. 편견을 버리고 사랑의 눈으로 보게 하소서 10. 착취와 소유, 불안과 경쟁의 길이 아닌 공의와 자유의 길을 걷게 하소서. 우리는 〈산상수훈 기도문〉을 2년 6개월 이상 매 주일 예배 시간에 함께 읽었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성도들의 마음과 세계관에도 하나부터 열까지 기도문에 담긴 이웃 사랑, 돈의 나눔, 환대, 돌봄의 언어들이 시나브로 새겨지고 있었다. 이처럼 예배에서의 공동기도문을 통해 교회의 공유된 언어가 교회 구성원에게 내재화되었기에, 도덕적 가치와 기독교 세계관이 조합원들에게 함양됨으로써 고엘뱅크도 높은 자금 회전율을 유지하며 운영될 수 있었다.

돈으로 말하는 청년 선교의 두 번째 주제는 ‘청년 공동 주거 공간 만들기’이다. 청년 주거 공유 프로젝트

는 아직 계획 중에 있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체화하고 장차 구현될 증거임을 붙잡고 계획 실현을 위해 나아가고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교통 요지에 있는 대형교회 소그룹 공간을 평일에 청년창업 공간으로 무료 개방하면 “비록 ‘개독교’ 시대이지만 회개의 합당한 열매 중의 하나가 되어 교회 이미지 만화의 계기를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하곤 했다. 도시 교회들이 게스트하우스를 사숙(私塾)형 청년주거공간으로 만들어서 지방에서 올라온 청년들이나 유학이나 취업하러 온 조선족이나 외국 청년들에게 안정되어 독립할 때까지 무상 주거 대여를 해 주면 어떨까? 비어 있는 목사관을 리모델링 하거나 다시 지어서 청년이나 청년 부부에게 조건부 무상 주거 제공을 하는 것도 어려운 시대의 성육신적 청년 선교가 될 수 있다.

돈을 나누고 받을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돈을 흘려보내는 삶의 방식은 교회의 생태계에서 나올 때 힘이 있고 반향이 생긴다. 미담(美談)의 울림 속에 너도나도 기도의 실천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본다. 하나님의 구원은 살롬이 청년 세대에게 충만하게 퍼지는 것이다. 살롬은 회년 사회의 다른 이름이다. 교회의 청년 선교가 ‘평등적 자유’의 심화와 확장을 빈곤 청년층 속으로 침투시킬 수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의 복된 상태를 다음 세대 가운데 볼 수 있을 것이다. FAITH & LIFE



글쓴이 문지용



서울 보성교회 담임목사이다. 성균관대와 총신대신학대학원을 졸업했고 말레이시아침례신학교 선교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중국 선교사로 14년간 사역한 후 국내에서 교회를 개척하여 청년 중심 사역에 매진하다가 최근에 보성교회와 교회 합병을 하여 담임목사로 섬기고 있다. GBS(Global Bridge of Sharing) 선교회 대표와 청년신학아카데미 공동대표로 섬기면서 세계 선교와 한국 교회 경신을 위한 콘텐츠 생산에 힘을 쏟고 있다.

청년 주거공동체를 통한 디딤돌

김유준 (주빌리교회 담임목사)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한국 교회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릴 정도로 급변하는 정보화 시대이자 스마트 시대에 한국 교회는 지혜로운 사역 방향과 전략에 대한 구체적 논의와 협력이 절실하다. 교회가 변하지 말아야 할 복음의 소중한 진리와 가치를 지켜야겠지만, 시대적 상황에 맞는 변화의 옷을 갈아입는 데는 주저할 필요가 없다.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교회가 어떠한 도전이나 비전도 제시하지 못한다면 교회 공동체는 그 존립의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일부 대형 교회를 제외하면 대부분 교회는 크게 위축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단지 교회만이 아닌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있기에 경제적 양극화가 더욱 심해졌다. 이로 인해 사회 곳곳의 소외된 이들의 빈곤 문제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교회와 '로컬리티'(Locality)

이에 필자는 청년 주거공동체와 지역교회의 공간 활용에 초점을 두고 교회와 '로컬리티'(locality)의 관계

를 잠시 나누고자 한다. 청년대학생을 위한 사역도 이전 개별 교회나 개별 목회자의 역량 차원의 문제로 접근하기보다는 한국 사회 전반에 걸친 대학 청년의 각박한 현실에 대한 이해와 그들의 고민에 귀 기울이는 것부터 출발할 필요가 있다. 교회가 빈곤 속에 고민하는 대학가 청년의 아픔을 공감하며 구체적 대안과 효과적 해법을 제시하면서 지역사회와 공조할 수 있는 알차고 실속있는 '로컬리티'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지 영적이고 신앙적인 차원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그 경계를 넘어 지역교회가 속한 마을과 로컬 전반에 걸친 폭넓은 영역으로 확대된, 공신력을 담보한 청년층 사역의 새로운 해법을 제시할 때다. 한국 교회의 미래를 생각해본다면 청년층의 주거 빈곤에 대한 대안 마련과 구체적 해법 제시는 단순한 선택 차원이 아니라 미래 한국 교회의 존립 여부와 직결되기 때문에 필수라 할 수 있다.

청년 주거공동체

‘지옥고’는 지하 단칸방, 옥탑, 고시원에서 생활하는 청년층의 주거 상황을 대변해주는 말이다. 청년들의 삶의 기초가 되는 의식주 문제, 그중에서도 대안적 주거 공동체에 교회의 관심이 필요하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한 공생애도 의식주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주거공동체였다. 기본생활을 공유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 됨을 기대하기 어렵다. 현대사회는 극단적 개인주의로 파편화된 개인을 강조한다.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40%에 육박한다. 함께 살아가는 기쁨이 무엇인지, 공유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경험할 기회가 많지 않다.

필자는 2022년 은평구 응암동에 위치한 한성교회 교육관 5층 건물 가운데 2층 ‘코이나 카페’와 함께 4층과 5층에 청년 주거공동체인 ‘코이나 교육훈련원’을 제안하여 당회의 결의로 함께 진행한 바 있다. 무상 임대 조건과 함께 리모델링과 운영 전반을 맡아 기본 2인 1실로 3층에는 4개, 4층에는 3개로 총 14~17명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기로 했다. 보증금이나 추가 비용 없이 매월 30~35만 원의 교육훈련비로 공동거주가 가능한 좋은 시설을 기획하게 되었다. 코로나19 이후 한성교회 교인과 지역 주민이 ‘코이나 카페’와 ‘어린이 꿈샘도서관’에서 점차 다양한 모임과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코이나 카페’ 운영과 ‘코이나 교육훈련원’ 기획을 통해 서대문구와 은평구 목회자들이 이러한 청년 주거공동체의 사례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장차 ‘성공적인’ 운영을 확인하면 이러한 주거공동체가 확산될 가능성은 크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단순히 특정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닌, 제2, 제3의 청년 주거공동체가 수많은 한국 교회의 공간을 통해 세워지길 소망하며 기도한다. 그럴듯한 건물이 있어야만 가능한 사역이 아니라 기존의 임대사업을 하

는 성도는 방 한 칸만이라도 청년들을 위해 보증금과 월세를 반값으로 내리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다. 집안의 여유 있는 방을 열어 식탁에 숟가락 하나를 더 얹는 마음에서 시작될 수 있다.

건강한 마을공동체의 중심점이자 청년의 디딤돌

한국 교회에는 이제 자신들만의 사역에만 매몰되지 않고 좀 더 거시적인 안목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공동체 사역의 공감대를 형성하며, 이에 대한 신학적인 틀과 협력의 체계를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 교회의 신뢰가 땅에 떨어져 있고 대부분의 교세가 기울어가고 있는 현실, 그리고 청소년부와 청년대학부가 텅텅 비어가고 있는 한국 교회의 심각성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급변하는 시대에 맞는 새로운 패러다임, 지역사회와 함께 건강한 마을공동체를 만드는 교회의 공간 활용, 그리고 공신력을 담보한 정부를 비롯한 세계 곳곳의 공적자금을 최대한 선용해야 할 것이다. 빈곤에 대한 거대 담론에 앞서서 우리 주변의 주거 빈곤으로 허덕이는 청년들을 위해 교회 안의 유희공간을 열어 공유한다면 그들의 디딤돌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전략과 대안 모색은 지속적으로 만들어야 할 우리의 과제이며 좀 더 구체적인 논의의 광장으로 모일 때다. **FAITH & LIFE**



✍ 글쓴이 김유준

서울 주빌리교회 담임목사이다. 연세대 신학대학 학부(Th.B)와 대학원(교회사 전공, Th.M, Th.D)에서 공부했고, 연세대 교목, 연세대 연구교수이자 한신대 겸임교수, ‘연세차세대연구소’ 소장(2014~) 등으로 캠퍼스 사역을 지속해 왔다. 최근 청년층 사역에 더 집중하기 위해 서울 은진교회 담임목사(2012~2022)를 사임하고, 2023년 1월 종로구 안국동에 주빌리교회를 개척하여 청년 카페와 학사를 운영하며 ‘K-Culture Campus’ 마을공동체로 주빌리 커뮤니티를 세워가고 있다. 저서로는 <아우구스티누스의 경제사상 연구>(2015), <조나단 에드워즈의 삼위일체론>(2016), <초빙글리의 경제사상 연구>(2022), <성서의 경제사상>(2022) 외 다수가 있다.

청년에게 ‘빈곤’은 어울리지 않는 수식어입니다

김재광 (희년함께 ‘희년은행’ 센터장)



전에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다. 빈곤은 오늘 당장 먹을 것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먹을 것을 구하기 어렵다는 절망의 다른 이름이라는 것이다. 빈곤이 어떻게 나와 이웃의 삶을 깊게 상처 입히는지를 절박하게 드러내는 말인 것 같아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다.

‘희년은행’은 부채 문제와 주거 문제로 고통 겪고 있는 청년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곳이다. 뜻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십시일반 기금을 모아서, 청년들을 위한 대안 대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7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현재 650여 명의 조합원이 6억3천여만 원의 기금을 모아서, 청년들을 지원하고 있다.

3년 전에 광주의 스물한 살 청년한테서 전화가 한 통 왔다. 불법사금융의 피해를 입은 청년이었다. 애초

100만 원을 빌렸는데, 한 달 반 만에 이자 포함 200만 원으로 부채가 갑자기 불어난 상태였다. 재무 상담을 통해 청년에게 대처법을 알려주었고, 사채업자와의 협상을 거쳐 청년의 빚은 원금만 상환 처리하는 것으로 매듭이 지어졌다.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청년한테서 고맙다는 인사가 담긴 장문의 문자를 받았다. 청년은 희년은행에 전화를 걸기 전에 안 좋은 생각까지 했었다고 털어냈다. 이제는 큰 부담을 덜고 홀가분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다면서 연신 고맙다는 이야기를 전해 왔다. 사실 100만 원, 200만 원이 감당하기 힘든 막대한 액수는 아닐 수 있다. 그런데 청년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라는 데까지 생각이 흘러갔다. 그것은 액수 자체 때문이라기보다는 100만 원이 200만 원으로 불어나기까지 걸린 이 ‘한 달 반’의 기간 때문이었다. 앞으로 하루하루 지날수록 부채는 감당하지 못할 수준으로 불어날 것이다, 내일의 희망이 있을까?

미래를 내다보면 절망뿐인데 암담한 마음이 왜 찾아 들지 않았겠는가? 청년의 이야기에 공감이가 있고, 빛이 청년의 인생 전체를 저당 잡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디든 가서 '희년은행' 활동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한다. "부채 문제, 주거 문제 특히 이것이 청년들이 마주하고 있는 문제라면, 이것은 단순히 빛 문제, 집 문제가 아닌 청년들의 미래 문제이고, 그것은 곧 우리 사회의 미래 문제이다." 청년은 앞날을 그리는 존재이다. 그 자신들의 생애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미래가 이 청년들이 그리는 미래상에 달려 있다. 그런 점에서 청년에게 빈곤은 어울리지 않는 수식어이다. 빈곤은 미래의 절망에 따르는 이름이기 때문이다. 청년이 빈곤하다면, 우리 사회는 그만큼 미래를 암울하게 전망할 수밖에 없다.

'희년은행' 사역을 하면서 만나는 청년들을 보면, 전에 빛 문제나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가 그 문제가 해소되거나 해결되고 나면, 그 이후로는 자기 인생 진로를 진취적으로 설계하고 개척해 나가는 모습을 자주 발견하게 된다. 빛과 주거는 일상의 기본 조건을 좌우한다. 다달이 부채 상황에 시달리거나, 다달이 보증금 이자를 갚는다면 월세 내기에 급급하다 보면, 도무지 미래를 진취적으로 설계해 나갈 에너지를 보듬어 가기가 힘들 수밖에 없다. 생애 주기별 과제를 수행해나가는 데 발목을 잡히는 꼴이 돼 버리는 것이다.

빛 문제로부터 놓임을 받고, 주거가 안정적으로 해결된 청년들은 더 적극적으로 진학을 결심하기도 하고, 평소 원했던 진로를 모색하기도 하며, 취업 준비에 더 열성을 내기도 하고, 또 결혼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기도 했다. '희년은행'을 만난 이후로 그렇게 변화된 일

상의 소식을 전해 오는 청년들이 있어 반갑고 또 감사했다.

빈곤을 이야기하면 복지로 한정 지어서 생활비 일부를 보태주는 것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 물론 복지나 생활비 지원도 무척이나 중요한 일이다. 그것으로 생활을 지탱하는 힘을 지원받는 경우도 정말 많다.

그런데, 청년들의 경우에는 좀 더 지속이 가능한 회복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삶의 조건을 개선하고, 일상의 기반을 제공하는 데까지 관심이 닿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자면, 더 적극적이면서 총체적인 지원을 고민해야 한다. 교회마다, 또 '희년은행'과 같은 사역을 하는 기관과 단체들이, 또 여러 그리스도인 개인이 힘을 모아서, 청년들이 빈곤에 머무는 일이 없도록, 또 미래를 저당 잡히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교회는 언제나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왔다. 교회는 늘 사회의 어둠에 그늘졌던 곳을 밝혔고, 오염되거나 변질된 영역을 정화해 나갔다. 지금 청년들의 미래 문제가 위태로운 처지에 놓여 있다. 교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이다. 함께 뜻과 지혜를 모을 수 있기를 바란다. **FAITH & LIFE**



글쓴이 김재광



'희년은행'에서 센터장으로 일하고 있다. '희년은행'은 고금리 부채와 주거 불안정에 노출된 청년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무이자 저축 기반 협동조합형 자조 금융이다. 교회와 단체, 개인과 청년을 연결해 청년들이 지속 가능한 재무 조건, 주거 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빈곤과의 ‘사귄’을 제안하며

손의섭 (히토츠바시대학교 사회정책과 박사과정)



빈곤 문제는 불평등이나 격차 문제와 같이 인류사회의 필요악처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했던 문제였다. 사회과학이 발달하게 되면서 이런 문제들을 설명하고 해결하는 데 있어 그 근처에 있는 인과율을 하나님의 존재를 배제한 채로 ‘사회’라는 대상에 귀결시키는 경향이 생겨났다. 예수님이 그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자에 대해 “그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는 편이 낫다”(요 12:5)라고 말한 가룟 유다를 제지한 것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도 이해할 수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한 상황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우리에게 있어 가난한 자들과 사귀어 나가는 일은 현대사회에 와서도 마찬가지로 유효한 일이다. 이는 어쩌면 현대사회 그리스도인의 신앙 좌표를 제시하는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다. 필자는 여기서 일본의 홈리스 문제와 교회의 역할을 살펴보고, 우리들의 삶 속에 침투해오는 빈곤 문제를 사회문제로 간주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각자의 삶 가운데서 이웃의 가난과 어떻게 사귀어 나갈지에 관련하여 독자들

과 함께 생각하는 기회로 삼고 싶다.

일본의 홈리스 문제의 배경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필자가 살고 있는 일본 도쿄에는 역이나 보도, 공원, 하천, 다리 밑 등 공공시설에서 일상을 보내야 하는 노숙인들이 다수 있다. 그 수가 일본 전국에서 2003년에 약 2만5천 명으로 파악되었지만, 2022년에는 약 3천5백 명으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넷카페 난민’¹⁾과 같이 상업 시설에서 지내고 있어 파악이 어려운 잠재적 홈리스들도 다수 존재한다는 연구도 있다. 그들은 사회에서 고립되어 잘 보이지 않지만, 그 가운데서 사회적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우리 주변에서 살아가는 “가려진 이웃”이다. 병든 이와 죄지은 이, 그리고 억눌려 사는 이들과 함께 식사하고 일상을 나누었던 예수님은, 분명 이런 홈

1. ‘넷카페 난민’(ネットカフェ難民)을 한국에서는 ‘비주택 거주자’라고도 표현함.

리스들을 잔치에 초대하셨을 것이다. 천국에서 식사하는 이들은 참으로 복되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리고 지금껏 필자가 홈리스 지원의 현장에서 살펴본 경험을 토대로, 교회의 홈리스 지원의 실태와 교회의 과제 및 역할에 관해 간략하게 나누고자 한다.

일본 동경의 홈리스 문제는 일반적으로 1990년대 거품 경제가 붕괴하면서 실업 문제와 동시에 부상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언론의 보도뿐만 아니라 학계와 행정부처에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사회조사가 이루어졌고 2002년에는 이와 관련된 법안도 제정되었다. 이 시기와 맞물려서 교회에서도 그들의 어려움과 함께하고자 하는 선교 활동이 일어나게 된다. 대표적으로 도쿄 신오쿠보에 위치한 한인교회인 동경중앙교회에서는 2002년에 '희망선교회'를 따로 설립하여 같은 교회 건물에서 주일 오전에 노숙자들이 예배를 드리고 식사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 외에도 그들을 위한 성경 공부, 취업 알선, 야외 심방 및 병원 심방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을 하면서도, 그들 스스로 봉사자로 참여하여 이 활동들을 지원해 왔다. 그리고 일본 교계와 해외 교계가 협력하는 초교파적 네트워크 'Kokoro Care'는 매주 월요일 저녁과 토요일 아침에 노숙인이 많이 생활하고 있는 공원의 보도에서 '통로채플'(通路チャペル)을 진행하고 있다. 그들은 홈리스들을 위한 예배이 기보다는 그들을 포함한 '우리 모두를 위한' 찬양과 기도,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예배가 끝나면 생활 빈곤자를 위해 준비된 빵과 각종 휴대식품을 배급하는 순서를 가진다. 이 외에도 많은 교회에서 홈리스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활동을 하고 있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가 그들이 생활하고 있는 곳으로 방문하여 음식을 조달하고 상담하는 곳도 있다. 이와 같이 국가의 정책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교회가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고무적이다.

이런 사례들을 살펴보면 홈리스 지원에 있어서 교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우선, 교회가 그들의 필요를 알고 채워주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노숙 생활이라는 가혹한 생활환경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들은 생존과 죽음의 경계선에서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간다. 그들의 어려움과 아픔을 공감하는 어떤 작은 교회에서는 교회 안의 단칸방을 내어주며 그들의 자립을 위해 후원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공간을 마련하여 서로 사귀는 일에 힘쓴다. 함께 예배드리고 또 서로 안면을 트고 사귀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한다는 것이다. 오랜 인류사 속에서 '우리 대 그들'이라는 대립의식이 무의식 깊이 각인되어왔기에, 나와 다른 생활양식과 가치관에 공감하고 그들과 사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또한 현대사회는 개인을 중시하는 문화가 자리잡고 있으며,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수준, 그리고 문화적 향유 등과 같은 측면에서 격차가 벌어진다는 점에서 점점 서로에게 동질감을 느끼기가 어려워진다는 것도 피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러나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사귀를 향유하고 또 어려운 자들과 사귀어 나갈 때, 참만한 기쁨과 생명력을 선사하는 고귀한 실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확신한다. **FAITH & LIFE**



글쓴이 손의섭



히토츠바시대학교 대학원 사회학연구과 박사후기 과정 2년 차이고 일본 사회의 홈리스 연구를 하고 있다. 일본에서 학사과정부터 지금까지 약 10년째 유학 생활을 하고 있으며, 이 기간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 현재 요한동경교회에서 청년부 임원을 맡고 있으며, 동시에 장애인 예배사역도 함께 하고 있다. 사회 속에서 교회(그리스도인)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고 실천하는 신앙을 지향한다.

빈곤과 한국 교회의 역할 : 유원식 희망친구 기아대책 회장

2018년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상대 빈곤율은 OECD 평균 11.1%보다 높은 16.7%로서 37개국 중 4번째였다. 이것은 그동안 한국교회가 세상에서 섬겨온 수많은 선한 일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스스로를 점검할 기회를 준다. 따라서 이번 호 '사람 사이'는 세계적인 비영리 자선 NGO로서 선한 사마리아인 정신을 일관되게 구현하며 희망과 빛을 전해 온 '희망친구 기아대책'의 유원식 회장님(주님의교회 장로)과 함께 빈곤 문제는 왜 우리가 계속 더 잘 품고 섬김의 역량을 확대해 나갈 한국교회의 사명이 되어야 하는지 정리하고 그 해안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



일시 2023년 2월 28일(화) 오후 2시 30분
장소 '희망친구 기아대책' 회장실
인터뷰어 홍승현 (서울대 불어교육과 강사, 동역회 정회원)
사진 & 정리 석종준 (서울대 캠퍼스 선교사)

홍승현 회장님 안녕하세요. 우선 '희망친구 기아대책'의 설립 목적과 현재 진행 중인 주요 사업 현황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유원식 '희망친구 기아대책'(이하 '기아대책')은 1989년 설립된 국내 최초의 '국제구호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비영리 자선 NGO입니다. 전 세계의 가난과 굶주림, 재난과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특별히 절대빈곤 상황에 있는 아동과 이웃을 주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한국교회의 사역 파트너로서 교회건축, 식량과 긴급구호 등을 지원하고, 지역 공동체 회복을 돕고 있는 선교 NGO이기도 합니다. 2023년에는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나그네, 고아, 과부'를 섬기는 다문

화 사역에 더 집중하는 앞마당 선교전략으로 떡과 복음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최근 해외 중점 사업으로는 지진이 일어난 튀르키예 뿐 아니라 기후변화로 인해 상황이 악화가 된 아프리카, 서부 아시아권의 긴급 구호를 계속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홍승현 '기아대책'을 섬기시기 전, 한국편마이크로시스템, 한국오리클 대표이사 등 IT 업계 최고경영자로 일하셨던 이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비영리 자선 NGO를 섬기게 되신 어떤 계기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유원식 저도 어린 시절에는 어려운 가정에서 후원과 도움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주고받는 것

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어요. 어른이 되어서는 말씀대로 IT 업계의 경영자로서 42세부터 약 17년 동안 일했고, 연간 소프트웨어 매출이 1조 원대가 넘는 기업의 최고경영자이기도 했는데요. 저는 그때에도 사회적 지위와는 별개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이 가장 나에게 올바른 삶인가”에 관한 고민을 항상 지니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1997년 예기치 않은 아들의 사망이라는 개인적 가정사를 통해서 삶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지요. 그 과정을 통해서 저의 인생을 세 개의 30년으로 나눌 때, 마지막 30년(third thirty)은 사회에 환원하는 삶을 살겠다는 생각과 서원을 하나님 앞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현재는 이렇게 ‘기아대책’에서 8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아대책’ 회장으로서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은 단순히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만이 전부는 아닐 수 있다는 것, “행함과 진실함으로”(요 13:18)라는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평소 말하는 “성경 구절에 밑줄 긋지 말고 삶에 밑줄을 긋는 인생을 살자”라는 의미입니다.

홍승현 ‘기아대책’은 기독교계 NGO입니다. 후원자 그룹 대부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도 잘 알려진 사실이지요.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유원식 제가 ‘기아대책’에서 일하면서 보고 느낀 것 중 하나는 돕는 곳이 어디든 영적 빈곤이 해결되지 않으면 도와도 결국은 그냥 수명만 늘리는 것이라는 생각 밖에 안 들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떡과 복음을 함께 실어나르는 것을 핵심 가치로 구현하고 있는 ‘기아대책’ 사역은 너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아대책’이 선교사들과 함께 해외 현장 사업을 하는 겁니다. 해외 현장에는 우리 직원이 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동역하는 선교사들이 한국인이든 현지인이든 직접 나가

서 일하는 그런 조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기아대책’의 목적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모든 형태의 빈곤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하는 것이고, 그 비전은 돕는 자들을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영적 빈곤에서 모두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회복된 사람만이 또 다른 누군가의 희망이 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우리 ‘기아대책’의 후원자 그룹 95%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 후원자 그룹이 지지해 주고 있는 덕분에 ‘기아대책’은 현재 떡과 복음을 함께 전하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지요.

홍승현 ‘기아대책’은 아동을 핵심 섬김 대상으로 삼아오셨지요. 그 이유가 궁금하고요. 또 관련해서 그동안 섬겨오신 구호 활동 중 가장 값지게 평가하시는 부분은 어떤 것이지요.

유원식 모든 공동체의 시작과 기본은 가정이고, 아동이 모든 가정과 공동체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아대책’은 도움을 주는 가정과 교회가 제대로 변화되고 구성되려면 아동 결연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기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약 4만5천명, 국내 약 3천 명의 취약 계층 아동을 결연으로 돕고 있는데요. 1명에 3만 원으로 결연하면 아동이 한 달 동안 점심 먹고 공부에 필요한 학용품을 사고, 기본적인 상비약 정도 예비할 수 있는 비용이 되거든요. 감사한 것은 우리가 벌써 30년 넘게 하다 보니까 그 아동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의사가 되고 교육자가 되고 자기 마을에 돌아와서 수의사가 되어서 가축을 돌보고 하는 열매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아동의 인생뿐 아니라 가정과 세상이 변화되는 열매를 거두게 된 것이지요. 또한 ‘기아대책’은 도와준 대상들이 자립한 후에는 ‘현지인에게 이양’이라는 출구전략을 또 하나의 핵심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아대책’이 그동안 섬겼던 가장 기억나는 일은 우간다 사업장 등 세계 곳곳에



서 있던 일입니다. 약 10년간 자립을 이루게 돕고 그들을 통해 다시 더 낮은 곳으로 희망이 계속 전달되도록 했던 것이 가장 값진 사업이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홍승현 한국교회의 선한 사마리아인 활동은 사회복지재단의 비율의 50% 상회하는 등 실제 한국 사회에서 그동안 수많은 섬김과 큰 성과가 분명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 2018년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상대 빈곤율은 OECD 평균 11.1% 보다 높은 16.7%로서 37개국 중 4번째였습니다. 이 빈곤율이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시사하는 점은 무엇일까요?

유원식 한국은 이제 절대적 빈곤에서 벗어나 상대적 빈곤을 느끼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좀 더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사회정서적, 심리적 지원이 함께 가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상황에 맞는 국가 차원의 제도 확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자면, 우리 '기아대책'은 지난 수년 동안 삼일교회(송태근 담임목사)와 함께 2년 전부터 노숙자 자립프로젝트인 '로로카페'를 숙대 앞에서 세워가는 일 같은 모델 개발에 힘써 왔고요. 더 나아가

일자리 창출로까지 연계되도록 하는 '커피 바리스타 인턴십 과정' 등을 진행해 왔는데요. 노숙자들이 바리스타가 되고 매장에서 직접 일을 하고 1년 만에 혼자 운영으로 자립을 하게 되었는데, 이는 새로운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동역의 사례가 여러 교회로 확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기아대책'은 이렇게 사회를 섬기는 일에 동참을 원하는 교회들을 다른 방식으로 돕기도 합니다. 즉 어떤 교회가 취약 계층 누구를 돕고자 할 때, 교회가 후원한 금액보다 더 많은 물품을 우리가 더 보태서 그 교회의 이름으로 지역사회와 사람들을 돕는 '희망상자 캠페인'도 해 왔는데요. 이것도 개인적으로 한국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는 좋은 하나의 모델로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홍승현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이 전하는 나그네, 고아, 과부 같은, 사회적 취약 구성원들을 더 적극적으로 섬기는, 이른바 선한 사마리아인 사명의 동참을 위해 어떤 초청의 말씀을 주시겠는지요?

유원식 '기아대책'은 이와 관련해서 2022년부터 TF 팀을 구성해서, 나그네 사역 등 우리 시대 취약 계층을 돕는 사업을 더 잘하기 위한 체계적 준비를 많이 해 왔습니다. 올해부터는 선한 사마리아인 사역에 중점을 두고 일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희망 친구'의 의미는 바로 고아와 같이 버려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님이 소망이 되어주셨듯이 우리 주변의 어려운 여러분들, 즉 나그네, 고아, 과부, 이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친구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기아대책' 사업에 동참을 원하시는 많은 분이 함께 '희망 친구'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홍승현 일반 기업의 경영자와 성경의 복음을 기반으로 한 자선 NGO의 경영자 모두를 경험하신 분이로서 공통점과 차이

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유원식 일반 기업은 이윤 창출로 목표 매출을 달성하기 위해서 일하지요. 반면에 NGO는 사명과 비전에 따른 ‘부르심’의 의미를 채우고 이루어가기 위해 모인 조직이기 때문에, 모든 사업과 행동에 ‘WHY’라는 물음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일반 기업에서 영리를 위한 최고경영자로 일했기에, 자선 NGO인 ‘기아대책’에 와서는 이 새로운 생태에 적응하는데 여러 시행착오를 겪었고, 존재 목적의 차이에 따라 그에 걸맞는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아대책’ 같은 자선 NGO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 뜻대로 사용된다는 것은 해당 NGO의 경영인과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감사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홍승현 그동안 ‘기아대책’을 섬겨오시면서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그리스도인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특별히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유원식 저는 ‘기아대책’ 직원들에게 이른바 ‘파이프라인 이론’을 늘 이야기합니다. 좋은 파이프라인의 조건이 있다는 것이지요. 첫째, INPUT과 OUTPUT이 같을 것. 둘째, 녹슬지 말아야 할 것. 셋째, 물이 새지 않을 것. 넷째, 가능한 짧을 것. 다섯째, 양방향의 통로일 것 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이자 파이프라인입니다. 저는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도 모두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통로이자 파이프라인임을 깨닫는다면 자기를 자랑하거나 내세움이 없이 오직 겸손히 일하고 섬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홍승현 지난 2월 23일, 회장님은 현재 세계 각처 기근 지역에서 구호와 인도적 활동을 하는 약 140여 개 NGO 단체로 구성된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제12대 회장으로도 선

임되었습니다. 앞으로 비전과 기도 제목이 있다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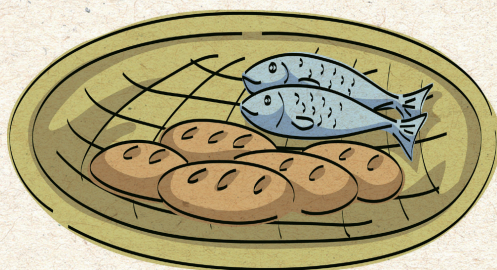
유원식 저는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회장에 선임되면서 회복탄력성을 강조했습니다.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전쟁, 자연재해 등으로 갑작스럽게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이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저의 비전은 이에 따른 대응으로 정부와 국제사회의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회원단체들 사이에 국제개발협력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면서 공동체의 회복탄력성을 증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승현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청년들에게 전하고 싶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유원식 안쓰러운 마음입니다. 우리는 산업화 시대에 사실 대학만 졸업하면 직장은 다 자기가 골라서 갔거든요. 요즘은 청년들은 스펙도 다 좋은데 좋은 일자리 창출이 안 된다는 것이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재 청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성인이 되어서 제도적 도움을 계속 받기가 어렵고, 우리 사회 현실은 이 필요를 충분히 채워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아대책’도 ‘청년 도시락, 마음 하나’ 등 다양한 청년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 사회 청년들의 희망이 꺾이지 않도록 하기 위한 우리의 최선의 노력입니다. 제가 여기서 청년들에게 “고생은 다 하는 거야”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남과 비교하지 말라는 것,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빌 4:6-7)로 하나님께 아뢰면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는 것, 마지막으로 행복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조금 달리 생각하면 좋겠다는 말은 전하고 싶어요. 우리 청년들, 어쨌든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이에게 희망을 또다시 전하는 좋은 희망 친구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FAITH & LIFE

오병이어를 내어놓는 아이처럼

석종준 (서울대 캠퍼스 선교사, 실행위원)



나는 지난 28년 동안 성남, 대전, 부산, 서울 등의 여러 지역교회와 캠퍼스에서 청년들을 줄곧 섬겨왔다. 나는 지난 2012년부터는 서울대학교교회 목사로 섬긴 4년을 포함해서, 서울대 캠퍼스 선교사로 지금까지 사역하고 있다.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이하 동역회)에서는 2018년 1월부터 약 3년간 사무국장으로 일했고, 현재는 동역회 실행위원과 기관지 <신앙과 삶> 편집위원을 맡고 있으며, 캠퍼스 대학원생 사역 협력선교사로서 소장 학자 모임 등을 섬기고 있다.

동역회와의 인연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나는 서울대학교교회 목사로써 4년 임기를 마치고, 캠퍼스 선교사로서 대학원생 독서 모임, 성경공부, 상담, 멘토링 등을 통한 사역을 이어가던 중이었다. 그때 서울대학교교회를 함께 섬겼던 실행위원장 박동열 교수님과 청년대학생 선교와 관련해서 학교에서 종종 이야기를 나누었고, 동역회가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얼마나 의미 있는 그리스도인 지성들의 플랫폼이 되어 왔는지, 그리고 여전히 귀한 분들이 어떻게 뜻을 함께 하며 섬겨 온 귀한 공동체인지를 소개받았다. 특

별히 동역회의 모체는 1980년대 그리스도인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의 기독교 세계관 독서 모임이었으며, 그 주역들 다수는 현재 어느덧 60~70대의 학계 시니어가 되어 있다는 것, 그러나 현재는 정작 캠퍼스 내 청년들의 자발적 모임과 활동은 약화된 상태로서 그 재부흥을 위한 기도 제목을 공동체 전체가 품고 있다는 것 등의 이야기를 듣고 중보기도에 힘을 보태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당시 동역회가 직면한 내부의 어떤 문제를 지혜롭고 조속하게 해결해야 할 상황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듣고 함께 기도하게 되었다.

나는 아마도 이러한 일련의 상황을 계기로 이듬해인 2018년 1월 10일부터 사당동 전철역 근처에 있는 동역회 사무실에서 사무국장으로 동역하게 되었다. 그러나 캠퍼스 영혼들을 섬기는 사역도 멈출 수 없었기에 당시 사무국 업무와는 별도로 점심시간과 퇴근 후 캠퍼스 독서 모임 등 다양한 모임을 병행하느라 매우 바쁘게 보냈다. 그리고 캠퍼스에서 만나는 학생들에게는 기회가 될 때마다 열심히 동역회를 소개하고 기독교학문연구회의 학술대회 대학원생부에서 논문발

표에 참여하도록 독려했던 기억이 난다.

2021년 2월부터는 ‘기독교대학원생 연합 독서 나눔 콘서트’, 즉 방학마다 오래전부터 개인적 관계가 있던 카이스트 기독교 대학원생 동아리 RACS(Research Association for Creation & Science)와 서울대 기독교대학원생 북클럽, 그리고 기독교학문연구회 학회장이셨던 성균관대 교육학과 유재봉 교수님의 제자들이 주축이 된 ‘독서그룹’이 함께 연합으로 개최하는 ‘독서 나눔 콘서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독서 콘서트는 학기 중에 각 캠퍼스가 별도로 독서 모임을 진행하다가 방학 약 1개월 전부터 콘서트에서 나눌 도서와 주제를 함께 선정하여 개최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특별히 지난 2023년 2월, ‘제4회 콘서트’는 ‘그리스도인, 인공지능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서울대 캠퍼스에서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오프라인으로 모임을 가졌는데, 새로운 만남과 사귄, 그리고 풍성한 토론의 기회가 되었다. 또한 지난 2022년 2월부터는 그리스도인 소장 학자 모임, 즉 기독교 세계관 운동의 가치와 의미에 공감하는 45세 이하의 나이에 다양한 전공의 박사학위를 지닌 그리스도인 소장 학자 약 30명이 함께 하는 모임을 세워가는 데도 힘을 보태고 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요 6:8-9).

오병이어 말씀(요 6:8-9)은 나의 사역자로서의 정체성을 규정해 준다. 이 말씀과 나의 정체성은 제자 중 하나에게가 아니라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던 ‘한 아이’와 연결된다. 여기서 아이는 이름조차 전혀 알려지지 않은, 도시락 내용으로 보아

매우 가난하고 작은 자였다. 하나님은 때때로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며 미약한 자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하는 것 같다. 그런데 이때 아이가 보잘것없는 자기 도시락 내용물에 주목한다면, 주님 앞에 그것을 기꺼이 내놓을 수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무(無)에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고 지푸라기 같은 미천한 인생도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한다면, 누구든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믿는다.

나는 매일 새벽, 그리고 캠퍼스에서 기회가 될 때마다 만나는 청년들과 소장 학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한다. 부디 하나님께서 섬기는 모든 영혼을 우리 시대의 요셉, 다윗, 다니엘로 세워주시고 사용해 주시길 바란다. 그러나 이것은 누군가가 우려하는 대로 이른바 ‘고지론’, 개인적 성공 이야기의 예비가 결코 아니다. 왜냐하면 나는 섬기는 모든 영혼이 오병이어를 내어놓는 아이처럼, 각자 소명의 자리(자기 자신, 가정, 세상)에서 주님의 온전한 사랑의 통로가 되기를, 즉 자기 도시락 속의 전부를 기꺼이 내어드림으로써, 자신이 아닌 누군가를 위한 축복의 통로로 오직 세워져 가기를 간구하고 축복하기 때문이다. FAITH & LIFE



글쓴이 석종준

서울대 캠퍼스 선교사이다. 지난 28년 동안 여러 지역교회와 캠퍼스에서 청년들을 줄곧 섬겨왔다. 침신대에서 공부했고(조직신학, Ph.D), 서울대 학교회 목사(2012-2016)를 역임했다. 현재 침신대 조직신학 겸임교수, 상대원침례교회 협동목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실행위원 및 기관지<신앙과 삶> 편집위원으로도 섬기고 있다.

‘영광의 시대’를 소망하며

고의천 (서울대학교 사범대 부설여자중학교 영어 교사)

“영광님의 영광의 시대는 언제였죠?”

만화 슬램덩크의 독자라면 들어보았을 대사일 것이다. 이 만화에서 부산고등학교 농구선수 강백호는 전국 농구대회에서 고교 최강팀인 산왕공업고등학교를 맞아 전력을 다해 경기를 펼치게 된다. 하지만 큰 점수 차로 계속 뒤지게 되고 이를 따라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던 중, 뜻하지 않은 허리 부상으로 원치 않게 교체된다. 나는 영화판 슬램덩크를 보고 나자, 이 익숙한 질문이 다시금 뇌리에 살아났다. 어쩌서였을까? 강백호가 자신의 재투입을 종용하며 감독에게 던졌던 이 질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롭게 들렸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영광의 시대는 언제일까? 그리고 그때를 위해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고 스스로 속삭이고 다독였지만, 그동안 경험했던 삶과 신앙은 부산고등학교 상황처럼 녹록하지 않았다. ‘안정적’ 교사 생활을 잠시 멈추고 미래의 교육과 세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새롭게 뛰어들 도전이었지만, 데이터사이언스라는 첨단 분야는 초반부터 강한 압박으로 나 같은 풋내기 도전자를 밀어붙였다.

어떻게든 좋은 선수가 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

만, 어문과 교육 및 신학만을 전공했던 본인에게 이 전공은 스노우(C. P. Snow)가 말한 ‘두 세계’의 반대편 끝에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이로 인해 결국 따라잡지 못할 것 같은 불안감과 염려가 몰려오곤 했다. 불확실한 대학원생으로서의 현실과 휴직 이전의 교사 생활이 종종 머리 속에 상기되고 교차하면서 예전에 동료 교사들이 했던 “굳이 휴직까지 해야 하나?”라는 질문이 떠올랐던 것도 사실이다.

물론 글을 쓰는 이 순간에도, 본인이 택할 수 있는 쉬운 해결책은 언제나 있다. 대학원에 입학하는 모든 과정이 소명의 발로였든 혹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던 그저 그때뿐이라고 치고 포기하는 것이다. 그러면 더땀을 흘릴 필요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학업에 나설 필요도 없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힘겨운 상황은 모면할 수 있지만, 그 대가로 시합은 종료될 것이다.

“난 지금입니다.”

감독에게 영광의 시대를 물었던 강백호는 자기 질문에 스스로 이렇게 답한다. 물론, 그가 의미했던 ‘영광’은 경기 중 다친 허리나 지고 있던 경기 상황 자체를 의미하지는 않았으리라. 그러나 그에게는 그 모든 악조건 속에서도 ‘지금’이 가장 영광된 순간이라 외칠 이유가 있었다. 바로 농구였다. 그리고 그 농구 속



에서 얻고자 했던 최후의 승리였다. 그러나 이러한 마음이 강백호뿐이었을까? 그날 최강 산왕 팀과 맞서 싸운 부산고등학교 농구팀의 선수 전원은 농구가 좋았고 이를 통해 승리하는 것을 그 누구보다 간절히 원했으리라.

신앙 속에서 학문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중에서도 대학원생들이라면, 비록 편차는 있겠지만 숨 가쁜 현실 속에서 연구 실적이나 재정 그리고 대인관계나 건강 등 다양한 영역에서 여러 가지 압박을 경험할 것이다. 그러나 도저히 해결책이 안 보이는 압박 속에서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 이를 뚫고자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과 신앙,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일 것이다.

결국 강백호를 포함한 부산고등학교 농구팀은 당일 경기를 보는 다수의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상황에서 기적 같은 역전승을 이루어낸다. 믿을 수 없는 결과에 그들은 환호했고 기쁨의 하이파이브를 나누었다. 하지만 학문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현실이 그와 같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최선을 다했지만 누구나 인정할 만한 학문적인 업적을 내는 것에는 실패할 수도 있고, 때로는 외부 사정과 환경으로 인해서 중도 탈락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광의 시대는 과연 언제 오게 될까? 비록 학문 앞에서

우리의 삶이 빈곤하며 또한 고난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우리의 모든 시도가 실패하는 것 같아도 그 모든 결과에 낙심치 않을 이유는 분명하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의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로마 8:18-21)

그리스도인의 삶과 학문에서의 승패가 자신들의 노력에 전적으로 달린 것이라면 ‘영광의 시대’는 오지 않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 영광은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적 죽음, 성령의 능력을 통한 부활을 통해 나타난다. 분명 그것은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을 모두 합하고도 남을 영광일 것이다. 그렇기에 나는 오늘도 소망하며 다짐해본다. “이 몸은 거들 뿐이고, 영광의 시대는 오직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고.” **FAITH & LIFE**



글쓴이 고의천



서울대학교 사범대 부설여자중학교 영어 교사이다. 서울대 영어교육과 학부 재학시절,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아신대 신학대학원(M.Div)에 진학했고 졸업했다. 군 복무는 '카투사'로 전역했다. 영어 교사로 재직 중 2016년 알파고와 이세돌 기사의 대국을 통해 AI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결국 5년간의 교사 생활을 휴직으로 멈추고, 현재 서울대 데이터사이언스 석사과정 중에 있다. AI를 포함한 사회 변화, 미래 교육, 신앙생활에 대해 관심이 많다. 코리아교회(여장통합) 청년이며 청년부 간사이다.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주님

이예원 (카이스트 컴퓨터그래픽 석사과정)

나는 그리스도인 집안에서 태어났다. 조부모님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고, 부모님을 거쳐 자연스럽게 모태 신앙으로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 부모님께서는 각자의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섬기셨고, 그러한 모습을 보며 나도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여러 모임을 통해 섬겼다. 스스로가 괜찮은 신앙을 가졌다고 생각했기에 자부심도 있었다.

10살 때 학교에서 자신의 꿈을 써오라는 선생님의 말씀에 '만화가'라고 적어냈다. 당시 TV에 방영되던 애니메이션과 어머니 몰래 빌려 보던 만화는 나의 가장 큰 관심사였다. 재미있는 콘텐츠를 보는 것을 넘어서 직접 제작도 해보고 싶었다. 그 꿈을 간직한 채 스무살에 한동대학교에 입학해서 영상을 전공하게 되었다. 영상 제작 과정은 무척 재미있었다. 머릿속에만 있던 그림을 여러 사람과 함께 현실로 만드는 과정이 상당히 매력적이고 두근거리는 일이었다. 어렸을 때 꿈이 현실이 된 것 같아서 큰 행복을 느꼈다.

학업과 신앙을 동시에 잡고 싶었던 나는 2학년 때까지 패기 있게 선교 동아리, 영화 학회, 전공 연구실 등 다양한 활동에도 참여했다. 그런데 열정이 과했던 것일까? 학업과 많은 활동으로 매일 늦은 시간에 잠이 들었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는 날이 많아지게 되었다. 신앙이 좋아 보이는 친구들과 비교해 보니 예

배 시간에 주님과의 온전한 만남보다는 보이는 신앙에 집중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왜 이렇게 신앙이 무너졌을까?" 고민해 보니 내가 진정 주님을 사랑하기는 했던 걸까 싶었다. 그냥 부모님을 따라서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녔던 건 아니었을까? 이러한 생각까지 도달하자, 그 이후는 교회에 가도 예배에 온전하게 집중하기 어려웠다.

학년이 올라가며 많아진 학업량은 나와 주님의 교제 시간을 점점 더 줄어들게 하였다. 흔들리는 신앙은 일단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겠다는 명분으로 주님과 멀어지게 하였다. 졸업 프로젝트를 앞두고서야 정신 차려보니, 내가 주님과 너무 멀어졌음을 깨달았다. 주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갈급함은 늘 있었지만 마음먹은 만큼 신속히 신앙이 회복되지는 못했다. 평생 이렇게 지속되면 어떡하지? 주님께서 방향하고 있는 나를 계속 이대로 내버려 두실까 무서웠다. 부모님을 포함한 주변의 그리스도인이 나의 이런 모습을 보고 책망할 것만도 같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누군가가 그 당시 나를 정죄하거나 억지로 교회에 끌고 가려고 했다면, 그 부담을 못 이겨 주님을 더욱 멀리했을 것 같았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는 주변의 많은 사람을 통해 나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오셨다. 주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시며 누군가에게 이끌려서가 아닌 내 의지로 아버지 곁에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는 느낌이 들었다.

그 이후로 나는 학사 졸업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참 감사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신앙적으로는 학문적으로든 많은 성장도 있었다. 하나님은 전공과 신앙에 대한 고민을 진솔하게 나누고 함께 기도할 팀원들, 그리고 학문과 신앙을 더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는 지도 교수님도 허락해 주셨다. 1년간 졸업 논문을 작성하며 연구에 대해 재미를 느낄 수 있었고, 감사하게도 좋은 논문 실적도 주셨다. 그렇게 졸업 프로젝트를 마무리 짓자, 더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 2022년 가을 학기에 카이스트를 지원했고, 지금은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에서 석사과정 2학기 차로 공부하고 있다.

나는 연구실로 출근하던 중 전화로 이 원고 섬김을 제안받았다. 당시 당황스럽고 걱정이 앞섰다. 스스로 이 글을 작성할 만큼 신앙이 좋다고 자신할 수 없었고, 아직 석사를 한 학기밖에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말을 확신 있게 쓰기에도 조심스러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처음 대학원에 들어왔을 때 위축이 많이 들었다. 대단한 선배와 동기들 사이에서 스스로가 너무 보잘것없어 보였다. 나만 모르는 내용이 너무 많고, 연구 주제를 정하지 못해 정제된 것 같아 초조했다. 한 번 자

존감이 떨어지기 시작하자, 끊임없이 위축되고 좌절되었다. 그러던 중 나도 모든 것을 나의 힘으로 하려는 교만함을 가지고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 4:13)라고 말씀하신다. 사실 나는 지금도 너무 약하고, 신앙적으로든 학업적으로든 거의 매일 무너지고 깨짐을 경험한다. 하지만 나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계속 일어서려고 노력하고 있다. 많은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오늘도 각자의 상황 가운데에서 이렇게 치열한 삶을 이어가고 있을 것이다. 만약 누가 절망과 방황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이 지켜주심을 믿고 굳건하게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물론 나부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우선 붙잡고 묵상하며 전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한다.

FAITH & LIFE



글쓴이 이예원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석사과정 중에 있다. 현재 카이스트 기독교 세계관 동아리 RACS(Research Association for Creation & Science)에 참여하고 있다. 대전의 오메가 교회 청년이다. 컴퓨터 그래픽스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을 공부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기 위해 기도하고 있다.

‘아웃사이더’로 떨어지는 길을 봉쇄하라!

영화 <홈리스>(임승현 감독, 2022)

추태화 (이레문화연구소 소장)

르포 한국 현실

한 사회를 들여다보는 기준에 ‘지수’(index number)라는 게 있다. 일상에서 흔히 만나는 지수는 코스피지수, 다우지수, 수출입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고용지수, 실업지수 등 경제 뉴스와 관련이 많아 보인다. 지수는 통계에서 산출되는데 한 영역을 측정하는 수치를 말한다. 이런 경우 지수는 상당히 물리적이며 산술적인 방법으로 대상을 이해하게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 한국인의 삶의 질을 평가할 때 ‘행복지수’라는 용어를 쓴다.

행복지수로 한국인의 삶을 들여다보면 충격적이다. OECD 국가 중 하위에 속하기 때문이다. 무역교역량이나 무역지수는 세계 10위 안에 들지만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는 의미이다. 물질적 풍요가 행복과는 크게 관련이 없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술, 담배 소비는 엄청나다. 그 지수가 세계 수위를 달리고 있으니 생존 경쟁, 무한 경쟁이 일상이 된 나라의 어두운 단면이라 하겠다. ‘극단적 선택’이라 포장된 자살률 또한 낮지 않다. 그렇다면 청소년들은 어떤가.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느끼는 행복지수는 그야말로 부끄럽고 안타깝다. 학생들에게 학교는 성장과 교육에 필요불가결한 공간임에도 그곳에서 행복하지 않다고 하니, 근본적 대안과 해결을 더 미루어서는 안되겠다.

행복지수와 주거 환경

우리나라 인구 문제는 시급한 상황에 접어들었다. 인구



<홈리스>



단절이 그야말로 가시화 되고 있다. 출산을 저하, 학력 인구 감소, 청년층의 사회 유입과 노동인구 부족 등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소이다. 출산을 저하는 청년층의 결혼 문제와 직결된다. 청년층의 결혼이 점점 늦어지고, 미혼율이 늘어나는 추세이니 결과는 불을 보듯 명확하지 않은가.

우리나라의 주거 문제는 결혼에도 깊은 영향을 주고 있다.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집값은 무주택자들을 더욱 난감하게 만들고, 젊은 층에게 ‘내집 마련’은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려 한동안 ‘영끌’ 집 구매가 유행처럼 번진

적도 있었다. 그런데 현재는 고금리로 인하여 이자 갚기에 다시 궁핍하게 살지 않을 수 없으니 이래저래 행복지수는 요원한 일이 되어버린 것일까?

여기에도가 사회의 불안은 한 가지 더 있으니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이다. 정부는 ‘정부를 믿어달라’고 하지만 시시때때로 변하는 임기응변식 정책으로 부동산전문가들도 어리둥절할 정도이다. 집이나 땅은 한국 사회에서 돈버는 묘수가 되어버린 지 오래이니 쉽게 제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문제는 구멍이 숭숭 뚫린 집 관련 계약에 그만 낭패를 당하는 일이 발생한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전세 사기다.

블랙 코미디 <홀리스>

어떤 사람이 악한 생각으로 전세금을 갖고 도망친다. 전세 사기, 평범하게 살아가던 세입자를 한순간에 거리로 내쫓게 만드는 고의적 범죄, 사회적 범행이다. 죄질이 매우 나쁜 경우다. 영화 <홀리스>(임승현 감독, 2022)는 바로 그런 이야기를 다룬다. 당사자들의 희생이 얼마나 처절하게 진행되는지 고발한다.

여기 젊은 부부가 있다. 거주할 곳이 마땅치 않아 갓난아기를 데리고 찢질방을 전전한다. 이들은 얼마 전 바로 전세 사기를 당했다. 집주인이라는 자가 전세금을 탕진해 버리고 잠수를 탄 것이다. 다른 집으로 이사할 수 있는 자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그만 ‘주거 난민’이 되어버렸다. 젊은 부부는 집주인을 수소문해 가며 찾아다니고, 경찰에도 신고한 상태. 그러나 수배는 쉽지 않다. 젊은 부부는 생활을 위해 택배도 하고, 전단지도 붙이고 할수 있는 일은 다한다. 현실은 녹록하지 않다. 곳곳이 처한 상황을 이겨보려 하지만 갈등은 어쩔 수 없다.

그러던 중 택배하던 남편이 넓은 집을 구했다며 들어가 살자고 한다. 집주인 할머니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서 잠시 봐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할머니는 전등을 달려 의사 위에 올라갔다 사고로 숨진 상태였고, 이 부

부는 당황한 나머지, 또는 집 없는 설움이 얼마나 컸던지 정원에 시신을 파묻고 불안감 속에 그 집에 눌러앉는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듯 그들은 ‘자신의 집’에서 오랜만에 여유를 누린다. 아침을 먹는다. 햇살이 비춘다. 언제 이 사건이 탄로될지 알 수 없지만, 그때까지 이 집은 젊은 부부에게 ‘내 집’이 되어 있을 것이다.

아웃사이더와 공정 사회

영화는 젊은 부부가 전세 사기에 당해 피해자가 되어버리는 과정을 보여준다. 수많은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갖고 잠적해 버리는 범죄 행각에 그만 집도, 돈도 잃어버린 이들의 안타까운 사연이 적지 않게 들린다. 당당히 자신의 삶을 영위해 가다 한순간 아웃사이더로 밀려버리는 이런 상황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가! 여기서 다시 묻는다. 정의로운 사회는 어떠해야 하는가? 평균 지수의 환경을 보장하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라 할 수 있는가? 한마디로 복지 사회가 우리가 추구하는 정의로운 사회의 목표인가? 정의가 인간 안에 내재해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는 특정 분야에서 ‘지수’의 척도가 높은 사회는 아니다. 지수는 온전한 사회를 만드는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다. 사랑과 공의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점진적으로 완성되어가는 그 하나님 나라가 비전이 되어갈 때, 사회는 정화되고, ‘홀리스’를 둘러싼 복합적인 사회문제도 해결되리라 본다. FAITH & LIFE



글쓴이 추태화

이래문화연구소 소장이다. 단국대 국문과를 졸업한 뒤 독일 뮌헨대학교에서 독일 문예학, 기독교문학, 철학, 사회학을, 그리고 아우그스부르크 대학교에서 독일 문예학과 신학(Dr.phil)을 공부했고, 최근 은퇴할 때까지 안양대 기독교문화학과 교수였다. 저서로 <광장에서 문화를 읽다>, <영화, 그 의미에 길을 묻다>, <상상력의 유혹>, <대중문화 시대와 기독교 문화학> 외 다수가 있으며 문화운동가로도 활동하고 있다.

타자와의 대화와 교감 : 화가 요제프 이스라엘스의 경우

서성록 (안동대 미술학과 명예교수)

미술가들은 이웃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았으며 대화하고 접촉면을 넓혀갔을까? 이 문제를 19세기 후반 네덜란드의 화가 요제프 이스라엘스(Jozef Israëls, 1824-1911)의 작품을 예로 들어 살펴보자. 네덜란드 호로닝언의 유대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이스라엘스는 유년시절 부친을 따라 상업에 종사하였으나 화가가 되기로 결심한 후 파리로 유학하여 그곳에서 미술을 배웠다. 때마침 파리에서는 밀레의 전시가 열리고 있었는데 이때 이스라엘스는 밀레의 전시를 본 후 커다란 감동을 받았다. 농부들의 실생활에 기초한 생동감 나는 사실주의는 그의 예술에 이정표가 되었다.

암스테르담으로 돌아온 그는 평소 자신이 흥미해오던 밀레처럼 서민들의 삶에 주목하게 된다. 따뜻한 색감과 잔잔한 터치로 해변 풍경과 어촌의 가족상을 그렸으나 본격적인 것은 아니었다. 그러던 차에 그에게 뜻하지 않은 일이 생겼다. 이스라엘스는 하르렘(Haarlem) 인근의 잔트포르트(Zandvoort)라는 마을에 머물며 요양하게 되었는데 이 기간에 특히 마을의 어촌 공동체와 그들의 삶의 방식에 끌렸다.

현재 잔트포르트는 리조트가 들어서고 피서객들이 몰리는 명소가 되었지만 19세기만 해도 위험스럽고 빈곤한 어촌에 불과했다. 이스라엘스는 그곳에 머무는 동안 가난한 어부들과 그 가족의 삶을 가까이에서 엿볼 수 있었고 그들에 대한 공허의 감정을 품게 되었다. 부유한 집안에서 성장해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았던 이스라엘스는 잔트포르트 어부들의 비참한 생활이 큰 충격으로 다가왔고 이를 공감의 언어로 전달하게 된 것이

다. 거기서의 생활은 그의 인생과 예술을 송두리째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그때부터 그는 진정으로 사랑과 연민으로 가득 찬 새로운 표현에 사로잡혔다.

이스라엘스의 예술세계에 돌파구가 되어준 〈익사한 사람을 나르는 어부들〉(1862)은 어부들의 삶을 사실적으로 펼쳐놓고 있다. 멀리 난파당한 배가 떠 있고 화면 하단에는 여러 사람이 시신을 물으로 옮기는 비극적인 장면이 펼쳐지고 있다. 화면은 남편을 잃고 실의에 빠진 여인과 영문도 모른 채 엄마 손에 붙들린 두 아이, 그리고 뒤를 이어 시신을 안고 걸어 나오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요제프 이스라엘스, 익사한 사람을 나르는 어부들, 캔버스에 유채, 129X244cm, 1862.런던 내셔널 갤러리 소장

농부를 모티브로 한 작품에서 이와 비슷한 측면을 볼 수 있다. 〈식탁에 둘러앉은 농부가족〉(1882)은 호화스럽지는 않지만,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장면을 그린 것이다. 식탁에 놓인 음식이라야 빵과 스프 정도가 전부이고, 가재도구도 변변한 것이 없는 지극히 가난한 가정이다. 아내는 남편과 아이들에게 음식을 나누어주는 중인데 아이들이 배가 고픈

지 음식에서 눈을 떼지 못한다. 맞은편에 앉은 남편은 약간 치친 기색으로 멍한 눈빛을 보내고 있다. 불기가 없는 타인지 집안 분위기는 더욱 을씨년스럽기만 하다. 이처럼 이스라엘스는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나타내면서 그들과 밀착하지 않고는 도달할 수 없는 예술 세계를 보여주고 있다.



요세프 이스라엘스, 식탁에 둘러앉은 농부가족,
캔버스에 유채, 71x105cm, 1882

이스라엘스의 예술에서 가장 빛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약자들에 대한 관심일 것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감상자에게 내 마음을 전하고 싶다. 육안으로 본 것뿐만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움직이는 것을 본 장면이 매료되기를 바란다.” 그의 시선에는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들어왔고 이스라엘스는 그들의 편에서 그들의 삶의 실재를 속속들이 담아냈다. 기댈 곳 없는 타자를 품는 일이야말로 그의 예술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가난한 이들의 벗이 된다는 것은 창작을 소명으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된 측면이다. 그들이 느낀 것에 공감하고 이를 잘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은 이스라엘스가 지닌 비밀 중 하나였다. 우리 주변에는 잔트포르트 주민같은 이웃들이 있다. 그들 중 어떤 사람은 극심한 생활고로 힘겨워하고 심지어 극단적인 상황까지 떠밀리기도 한다. 조금만 주위로 눈을 돌리면 네

덜란드 화가들이 만났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덩어리의 빵을 부풀리는 ‘누룩’이 되어야 했던 것은 그분의 나라가 죽은 이후에만 성취되는 먼 훗날의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스도의 하늘나라 선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거하는 달라진 세계질서를 요구하는 외침이었다. 이것이 우리 세계를 위한 예수님의 좋은 소식이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의 정신에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그분의 사랑과 성품을 엿볼 수 있게 하실 것이다.

윌터 브루그만(Walter Brueggemann)의 말처럼 “하나님은 자기 존재의 안위가 아니라 참 대화에 몰두하시며 이 대화는 타자의 안녕을 되살리고 영원한 찬가를 부르게 해준다.” 타자와의 대화와 교감에서 비롯되는 행동은 비록 화려한 말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체험하게 해 준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의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이다. **FAITH & LIFE**



글쓴이 서성록



안동대 미술학과 명예교수이다. 홍익대 서양학과와 동대학원 미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동서 문화센터 연구원을 지냈다. 주요 저서로는 〈전후의 한국 미술〉, 〈한국 현대 회화의 발자취〉, 〈한국 미술 노트〉 〈렘브란트의 거룩한 상상력〉, 예술과 영성, 〈미술의 터치다운〉, 〈박수근〉, 〈미술관에서 만난 하나님〉, 〈칼빈주의 예술론〉 등이 있다.

읽는다는 것과 산다는 것

전현철 (포천 바른교회 목사)

기독교는 예배당에 출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새롭게 예수님을 배우는 것이다. 예수님의 사역은 책상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고, 부지런히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형성하여 새로운 존재(being)로 인도하는 사역이었다. 교회가 예수님의 사명을 계승하여 2천 년의 역사 동안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며 오늘에 이르렀다는 것은 단순하거나 유아론(solipsism)적이거나 단선적이지 않고, 풍성하며 복잡다단하지만, 혁신적인 당대의 지배적인 사고를 뛰어넘는 파격적인 길도 서슴지 않고 걸어갔기 때문일 것이다.

여기에 평범해 보이지만 낯설고 독특하고 생경한 길을 걸어간 분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읽다, 살다>에는 필자로 교사 두 분, 시민사회 운동가 두 분, 의사 한 분이 참여하였다. 이분들은 어찌 보면 모두 이러한 수고로운 삶이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 능력이 있다. 즉 많은 이들이 쉽게 가는 방식대로 그렇게 쉽고 안이한 길을 택하는 대신에 한결같이 스스로 힘든 일을 자처하고 남들이 잘 가지 않는 길을 택해서 즐겨 걸어간 분들이다. 마음이 몹시 아픈 아이들과 마주하신 권일환 선생님, 불평등한 사회 앞에서 회년이라는 정신을 사회 안에 가져오기 위해 고군분투해 오신 남기업 소장님, 고질적인 교육 문제 앞에 행복해하지 않는 학생들을 마주한 송인수 선생님, 교장이나 교감의 직위를 통한 출

세와 안주보다 하나님의 평교사로서의 부르심 앞에 마주하신 정병오 선생님, 자본주의 체제의 총아인 개원의로서의 정체성과 보수적 기독교의 정체성 앞에서 고민한 정한옥 선생님이 바로 그들이다.

이 필자들은 자신이 걸어가는 체제의 문제에 고민하고, 자신 앞에 마주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길을 나섰고,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때로는 예언자로, 때로는 교사로, 때로는 부모로, 품어주며, 안아주기를 마다하지 않았고, 그 속에서 말씀을 붙잡고 살기 위해 찾아 나서기도 하면서, 예수 '따름이'로 살려고 발버둥치신 분들이다. 얼핏 보면 일종의 간증 같기도 하겠지만 결코 "그래서 복 받았어요"로 마무리하지 않아 좋았던 책이다. 성공서가 아닌, 성공의 끝이 아닌, 오늘도 현실 앞에서 기독교인으로 고민하고 아파하며 또 새롭게 살아가는 것을 멈추지 않는 분들의 이야기이다.

오늘의 한국교회는 이전에는 겪어보지 못했던 지독한 열병을 앓고 있다. 이런 열병을 앓기 전 이른바 '가나안' 성도의 출현이라는 전조 현상이 있었다. '가나안' 성도의 출현은 도덕과 윤리의 부재와 부정부패, 신뢰도 하락과 기독교 지성의 결핍, 주체적 사고의 결핍, 대안 공동체로서의 포기 등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결과들이었고, 코로나를 겪으면서 한국교회의 위상은 한없이 추



〈읽다, 살다〉 / 정병오, 남기엽 외 (지음) / 잉클링즈 / 2023

락했다. 이들의 출현은 미래가 없을 것 같은 한국교회에 새로운 희망을 엿보게 한다. 이들의 출현은 천편일률적인 한국교회에 생각하고 고민하는 단비와 같다는 생각에 반갑기 그지없다. 이전에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교회로의 안내는 아닐지라도 고착된 한국교회의 어떤 측면들에는 분명 새로운 물꼬를 터줄 흐름을 만들어 줄 분들이라고 생각한다.

책 제목이 '읽다 살다'이다. 필자가 보기에 여기에 나오는 분들은 모두 '읽기'와 '살다'의 달인들이다.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읽기의 영역이 아니라 사유와 삶의 영역이고 산다는 건 실천과 실존과 생존의 영역이다. 아는 만큼 산다는 말이 있지만 실은 사는 만큼 아는 것이다. 아는 만큼 산다는 것은 치열한 생존의 영역을 다소 가볍게 본 측면이 있다고 보기에, 결국 사는 것만큼 아는 것이고 삶은 삶의 총체적 산물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살기 위해 읽었고, 읽은 만큼 살아갔고, 실은 산 만큼만 예수님의 길을 안 것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이토록 어려운 것이다. 그 어려운 길을 이분들은 걸어가고 있다.

저자 중 몇 분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다. 정한옥 선생님은 밥 잘 사주시는 형님이신데, 이 형님에게서는 늘 고수의 아우라가 뿜어 나온다. 맛있는 식사는 좋은

칭찬만 하게 만든다! 또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정병오 선생님의 글 중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목이 마음에 와닿았다. “하나님은 나를 더 시골로, 더 변두리로 가서, 더 작은 사람을 만나고, 더 존재감 없이 살라고 하시는구나.” 한마디로 모두 멋진 예수 ‘따름이’들이다.

FAITH & LIFE

 글쓴이 전현철



독립운동가인 할아버지로부터 3대째 신앙을 이어오고 있으며 기독교대한성결교회의 목회자로 포천에서 바른 교회에서 담임목사로 시무하고 있다. 독서를 좋아하고, 10년간 주변 목회자와 독서 모임을 인도해왔고, 목회자를 대상으로 하는 중국신학교에서 7년째 강의를 하고 있으며, 폐북에서 '성경 묻고 답하기'라는 모임의 디렉터로 한국의 저명한 교수님을 모시고 강좌를 열어 학자와 평신도와의 만남을 5년째 하고 있다.

사람 사는 세상을 사랑합니다

양은주 (재활의학과 전문의)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2권〉 박동열 · 이상민 (지은이) / 도서출판 고북이 / 2023

대학교에 들어간 첫 여름 방학이었다. 난생 처음으로 홀로 미국에 사는 친척 이집 저집을 방문하며 두 달여 간 머문 적이 있다. 여느 한국 고등학생처럼 책상 앞에서 공부만 했던 나는 모든 것이 낯설었다. 한 달 동안 등록한 어학원에서 만난 외국인들에게 수줍게 쭈뼛거리며 말을 건네고 싶었지만 어색했다. 유명한 관광지를 보여주지 위해 나 때문에 가족 여행까지 잡아 함께 샌프란시스코와 LA 여러 도시를 보여주느라 애쓰셨던 분들께 죄송하게도 오롯이 즐길 수 없었다. 무엇을 보아야 하나 어떤 걸 선택해야 하나 어느 것 하나 자유롭지 못하고 어색하기만 했던 내가 유일하게 즐길 수 있었던 시간은 나보다 열 살 많은 재미교포 언니 같은 오촌 아줌마와 함께 여기저기 미술관을 돌아다니며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던 때였다. 율법이 아닌 진리 안에서서의 자유의 삶이 무엇인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온갖 고민을 끌어안고 있는 나의 생각을 편하게 이야기해도 되는, 나보다 조금 나이 많은 어른이 있다는 게 좋았다. 이야기하며 걷는 새로운 길은 외롭지 않았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란 책을 읽으며 그때 걸었던 길이 떠올랐다. 낯선 초행길이지만 그래도 걸어보아야지 선택하며 길을 나서려는 때, 나보다 조금 나이 많은 어른이 다가와 옆에서 조곤조곤 이야기를 건네주는 글

이다. 가벼운 잡담이나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 것도 소중한데, 보이지 않는 존재를 피하지 않고 직면할 용기와 선택의 책임과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자 고민하는 살아 있는 청년들에게 먼저 다양한 문들을 열어주는 글이다. 일방통행으로 훈계하거나 가르침을 주는 지식 전달용 글이 아닌 답이 없을 것 같아 지레 피해버리게 되는 영역 모두 생각해볼 수 있도록 미리 건드려 주면서 이야기를 건네는 글이다. ‘생각 열기’, ‘생각하기’, ‘생각 나누기’의 구조에 따라 기술, 핵발전소, 인공지능, 환경위기, 소비주의, 소비행위, 금융위기, 도시, 교육, 불평등, 마르크스 사상, 광고, 선전, 대중매체, 오락 등 주제별로 글을 읽다 보면 어느새 용기를 내어 “다양한 관점의 이야기를 건네 보아도 괜찮겠구나, 외롭지 않겠구나”라고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생각 나누기’의 질문을 따라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말을 건네고 싶은 사람들이 이 책의 저자들이다. 프랑스 사회학자이자 신학자인 자크 엘룰(Jacques Ellul)의 저서를 계속 번역하고 그 사상을 연구하며 청년들에게 소개하려는 열정을 지닌 이상민 선생님, 그리고 오랫동안 함께 하신 박동열 교수님, 저자 두 분은 엉뚱한 질문과 답변을 가지고 대화를 건네도 환대해주시길 같은 분이다. 갑자기 변하는 세상에서 생각하는 살아 있는 존재로 살고 싶은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대화의 장

으로 초청해줄 것 같은 분이다. 한참 던져놓은 주제를 가지고 답론을 나누고 있으면 몇 달 지나면 새로운 세상의 문들을 준비해서 이런 것도 생각해보아도 된다고 재미있는 생각 보따리를 새로 가져와 줄 분들이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영역 아래 어느 하나 묻어두거나 외면하지 않고 찬찬히 들여다볼 수 있도록 넉넉하고 풍성한 생각 주머니를 지니고 계시는 분들이다. 그래 용기를 내서 불쑥 한번 질문을 던져보자. 열다섯 가지 주제 모두 중요하지만 아직 나의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은 숙제로 남기고 기술에 대한 생각들을 나누어보자. 자기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나는 재활의학과 의사다. 조금 더 부연 설명하면 암 환자의 삶을 고민하는 재활의학과 의사다. 의학을 과학이라는 학문 아래 두면서 각종 의학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시대에 ICT, 가상 현실, 로봇 기술이 환자의 재활, 다시 살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기술로 부각하는 장 한가운데 살고 있다. Chat GPT가 의사 면허 시험도 합격했다는 소식과 함께 언젠가는 의사 역할을 대체할 인공지능 시대가 왔다는 기사를 읽으며, 살아 있는 인간 존재 자체의 유일무이한 독창성은 무엇인지 고민하게 된다. <과학기술 연구에서의 인문사회적 참여>라는 연구 보고서를 며칠 전 조심스럽게 세상에 내놓으며 과학기술의 사회와 인간에 대한 영향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과학기술 연구에서의 성과 달성 모델의 모호성과 불완전성을 개선하며, 과학기술 연구에서 학제 간 협력의 필요성을 해결하기 위하여 인문사회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역설해 보았다. 하지만, 이 또한 과학기술의 수월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성의 항목까지 포함시키려는 시도에 그친 것이 아닌지 자문해 본다.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어떤 가치를 더할 수 있는 것인가.

마침 오늘의 매일 성경에서는 사두개파 사람들의 참패 소식을 듣고 어떻게 대응할지 모의하는 바리새인들의 질문 공세가 나온다. 율법 중 어느 계명이 가장 큰지 순

위를 매기고자 하는 사람들의 공통 질문이다. 가장 중요하고 우선인 것들을 효율적으로 찾아주는 각종 기술의 행태가 마치 바리새인들의 질문과 유사하다는 생각이 번뜩 머리를 스친다. 예수님의 대답은 정말 기가 막히다. 율법의 핵심을 명쾌히 요약한 이후 바리새인들에게 던진 질문,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마 22:45) 시공간을 뛰어넘는 다른 차원으로 생각을 확장해 주신다. 바리새인들을 향한 사랑이었다.

책의 1장 20페이지를 펼치면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온다. “기술의 가장 큰 도전은 기술이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사실상, 인간은 생각과 선택에서 자유로울 때만이 존엄성과 고유성을 지니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인간을 대신하여 대속 제물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끊임없이 무엇이 중요한지 좋은 것인지 줄을 세우는 기술에 매몰되는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는 자유의 차원을 생각해보자고 한다. 저자가 기술과 관련하여 거부하는 것은 기술에 과도하게 부여된 신성함이지 기술 자체가 아니라고 한다. 인간의 행복을 위해 구체적인 기술을 어떻게 민주적이고 유연한 기술로 유도하고 통제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보자고 한다. 바리새인들에게 둘러싸여 질문을 받고 있는 예루살렘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상상해본다. 그 질문이 너무 일차원적이라 무시하지 않고 하나하나 답하며 가르치셨던 그분의 세상을 향한 사랑을 떠올려 본다. **FAITH & LIFE**



글쓴이 양은주



연세대학교 의대를 졸업했다. 철학과 문학 그리고 신학을 좋아하는 재활 의학과 전문의이다. 의사수필동인 박달회 회원, 돈는해교회 중고등부 주일학교 교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공저로는 <내가 살린 환자, 나를 깨운 환자>, <느린 걸음으로> 등이 있다

한국교회의 문제와 대안에 대한 살아있는 이야기

강성호 (안양일심교회 부목사)

이연우 목사의 저서, <피로교회를 넘어 필요교회로>는 제목이 책의 주제를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다. 이러한 책을 대할 때마다 선입견처럼 생기는 우려가 있다. 총론 수준에서는 문제를 선명하게 지적하지만, 각론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제대로 다루지 않을 것 같다는 선입견이 생길 때가 많은 것이다. <피로교회를 넘어 필요교회로>는 이같은 우려가 얼마나 부질없는 선입견이 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이다.

동시대 구체적인 이야기로 한국사회와 한국교회를 분석한다

이 책은 핵심 질문에 대해서 동시대 사람들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바탕으로 답을 주고 있다. 오늘날 한국에서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성실하고 세밀하게 살피고 있기에, 이 책은 동시대성과 구체성과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지 않다. 책 표지 하단에 자리한 “예수님의 피로 산 교회는 왜 피로교회가 되었을까?”라는 질문은 매우 도발적이지만 동시에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의 핵심을 찌른다. 이 질문을 논문 작성에 필요한 연구 질문의 형식으로 생각해 본다면, 저자가 입증하고 제시해야 할 답변은 매우 거대한 담론이 될 가능성이 많다. 또한 왜 그리스도께서 피로하신 교회가 어떻게 피로교회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 원인을

조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연구자의 증명 부담이 너무나 큰 작업일 뿐만 아니라 적절한 방법론을 찾는 것 역시 어려울 수밖에 없다.

‘교회를 듣는다!’라는 주제로 20~50대의 성도 100명, 목회자 100명 정도의 사람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벌인 후 이후 심층 인터뷰까지 추가로 진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 안의 사람들의 “솔직하며 유쾌하고 진지한 이야기”를 확보할 수 있었다. 설문조사의 답들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하는 양적 연구의 일반적인 모습에서 탈피하여, 심층 인터뷰에서 얻은 결과에 대한 질적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 질문에 대한 적절한 대답을 찾으려 한 것도 이 책의 뛰어난 점이다. 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들과 한국사회의 대중문화, 문학작품, 영화와 드라마, 사회과학 도서 등을 탐구한 내용들을 씨줄과 날줄로 삼아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과 한국사회 구성원들에게 적절한 이야기로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데도 성공하였다. 예를 들어, 저자는 “실천 현장은 교회를 넘어 세상으로 확장된다”와 같은, 이 책에서만 등장하는 언어로 설명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교회의 정체성을 교회 내에서만 찾지 말고 세상의 필요에 대한 반응에서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라고 질문한 청년의 말과 연결해서 기술한다. 따라서 독자들은 교회 공동체의 실제 청년의 생생한



〈피로교회를 넘어 필요교회로〉

이연우 지음 / CUP / 2023

목소리를 통해서 저자의 주장이 현실에서 살아 숨 쉬는 것 같은 언어로 느낄 수 있다.

피로교회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이 책의 장점은 거시적 관점에서 한국교회의 문제를 다룬 책들의 약점을 훌륭하게 극복했다는 것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많은 경우 거대 담론을 다루는 책들은 문제 제기과 주의를 집중시키는 것에는 성공하지만 구체적인 대안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스탠리 하우어워스(Stanley Hauerwas)는 교회가 성경의 내러티브, 즉 예수 내러티브에 충실한 성품의 공동체가 되어 구성원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에 합당한 성품을 함양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우어워스의 주장은 기독교 '성품 윤리'가 제시할 수 있는 이상적인 해답이지만, 이 해답이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현실 속에서 구체적이고 적실성 있는 해답처럼 여겨지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성품은 추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사회, 즉 '이야기를 가진 사회'(storied society)를 통해 형성된다"라는 하우어워스의 주장이 곧바로 한국교회의 성도들에게 현실적인 대안으로 설득력 있게 제시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한국교회 성도들에게는 그의

주장이 현실 속에 뿌리를 내린 생생한 이야기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신학적 주장과 한국교회 현실과의 괴리를 극복하기 위해, 저자는 '환불원정대'의 노래 〈DON'T TOUCH ME〉와 드라마 〈나의 아저씨〉 등을 인용하여 일상의 언어로 자신의 논지를 전달한다. 이를 통해 저자는 이야기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모습을 동시대의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일상의 언어로 제시하였다. 또한, 저자는 다양한 신학자들의 글과 관점을 바탕으로 굳건한 신학적 토대 위에 논지를 펼치고 있다. 이를 통해 공동체의 본질을 회복할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책의 정수를 담고 있는 '온전한 일과 쉽이 회복되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위한 선언문'은 한국교회에 필요한 비전 선언문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연우 목사가 쓴 〈피로교회를 넘어 필요교회로〉는 현실에 뿌리박은 생생한 이야기로 한국교회의 문제와 대안을 구체적이고 적실성 있게 제시한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서 이야기 공동체로서의 교회, 연습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 속에서 구현해 나가는 꿈을 꾸고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FAITH & LI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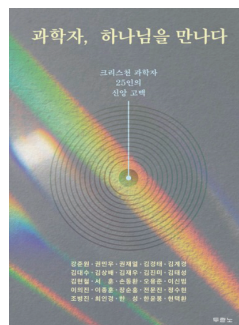


글쓴이 강성호

안양일심교회(교신) 부목사이자 고려신학대학원 기독교윤리학 외래교수이다. 서울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학부, 고려신학대학원(M.Div), 미국 Calvin Theological Seminary(철학적 도덕 신학 & 조직신학, Th.M), 캐나다 McMaster Divinity College(기독교윤리학, Ph.D)에서 공부했다. 2009년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간사로 재직한 바 있으며, 저서로는 〈코로나19가 드러낸 한국교회의 민낯〉(2021, 공저), 역서로는 〈아브라함 카이퍼〉(2015, SFC) 등이 있다

학문과 삶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책

김다빈(서울대 기계공학부 박사과정)



〈과학자, 하나님을 만나다〉 / 강준원 외 지음 / 두란노 / 2023

과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과학적 방법론으로 검증된 사실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기 어렵다는 생각은 과학자에 대해 널리 퍼져있는 오해 중 하나이다. 이 책은 그러한 오해에 정면으로 반박하듯,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이공계 분야에서 오랜 기간 종사해오신 25분의 과학자들의 진실한 간증을 담고 있다. 대학과 연구소, 산업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몸담고 계신 과학자들의 이야기들 속에서, 그들의 개인적인 삶뿐 아니라 학문과 산업의 영역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생생히 만나볼 수 있다.

본인 또한 공학을 공부하고 있는 대학원생으로서 신앙을 지닌 과학자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 책을 접하게 되었을 무렵, 본인은 진행하고 있는 연구가 실패할 것에 대한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등등으로 불안에 휩싸여 있는 시점이었다. 그러나 〈과학자, 하나님을 만나다〉에 실려있는 여러 과학자 선배님들의 삶과 이야기 속에서, 학문의 발견과 성취 모두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창조된 세상을 자유로이 탐구할 수 있도록 과학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렇기에 자연을 알아가고 또 응용하는 모든 과정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또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되는 시간이었다.

이러한 사실을 〈과학자, 하나님을 만나다〉에 실려있는 선배 과학자들의 삶의 간증을 통해서 다시 깨닫게 되는 것이 후배인 나로서는 참으로 위로가 되었다.

본인의 경험과 같이, 이 책은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양하고 놀랍도록 역사하시는지, 특히 과학자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집중적으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평소 우리는 〈과학자, 하나님을 만나다〉에 참여하신 과학자들과 같은 훌륭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쉽게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이렇게 25분의 신앙 선배님들의 놀라운 간증을 한 책 안에서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따라서 이 책을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 현장에서 신앙을 붙들고 학문과 씨름하고 계시는 모든 연구원, 또 과학자들이 만나고 경험하는 하나님이 궁금하신 모든 성도님에게 추천한다. **FAITH & LI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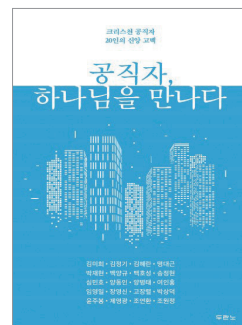


글쓴이 김다빈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를 졸업하고, 현재 동대학원 박사과정에 있다. 로봇공학 전공자로서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신앙과 공학의 관계에 대해 관심이 많다. 서울대 기독교대학원생 독서모임 멤버이며, 부천 온누리교회 소속 청년이다

하나님이 주신 선교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그들의 이야기

김은진(서울대 시각디자인학부 석사과정)



〈공직자, 하나님을 만나다〉 / 김미희 외 지음 / 두란노 / 2023

갓 10대 초반일 때 북미로 유학을 결정하고 해외에서 오랜 세월을 보낸 나에게 한국은 항상 그리고 가고 싶었던 나의 나라였다. 한국어 사용이 금지된 때에도 몰래 한국어 서적을 찾아봤었던 기억도 있다. 부존자원조차 없는 작은 땅에서 고군분투하며 최선을 다해 주어진 삶을 살아낸 대한민국의 국민들. 그 결과 한국은 GDP 세계 10위에 오를 만큼 세계에서 최단기간 선진국에 진입한 나라가 되었다. 그리고 이 눈부신 발전 뒤에, 신실하게 하나님이 주신 선교지를 사랑하며 헌신한 공직자 선교사들이 묵묵히 버티고 서 있었다.

〈공직자, 하나님을 만나다〉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공직의 자리에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충성한 20인의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를 모아 놓은 신앙 고백 서적이다. 한 나라가 선진국의 반열에 오를수록 사회는 세속적인 가치에 중점을 두게 된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중요한 소명의식이 항상 삶의 기저에 최우선적으로 깔려 있다. 이것은 영생에 이르러 천국에 가는 그 날까지 평생 지속된다. 이 책의 공직자들은 그러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검소하게 자신의 분야에서 헌신한다. 이들 또한 모든 사람의 인생이 그러하듯 생각하지도 못했던 진로의 변경, 그리고 재정적 고난과 실패의 연속인 나날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겸손히 버티며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였고 이는 결국 선한 축복의 열매를 맺히게 하였다. 결국 본인과 모두에게 유익

이 되는 소명의 삶을 살아낸 것이다. 지성과 영성이 겸비된 하나님 나라의 축복된 군사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한 명의 천국 시민으로서 정체성을 갖추어 나가는 여정을 잠시나마 이 책을 통하여 보게 되었다. 이러한 공직자 선교사들의 삶은 나에게 큰 도전과 위안을 주었다. 물론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리는 큰 기쁨도 있지만, 직장인으로서의 경험과 대학원생으로서의 경험이 둘 다 있는 나에게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가끔은 버거울 때도 있었다. 생각하지도 못한 인간관계 가운데서의 어려움과 학업에서 부딪히는 업무적인 어려움 등 말이다. 또한 교회 사역을 오랫동안 하며 간간이 느꼈던 어려움 또한 과거에 있었다. 약간의 신앙적 탈진(Burn-out) 현상이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한국인의 정체성을 가진 국민으로서 이 책을 추천한다. 그리고 읽는 사람들의 마음에 잔잔한 파문이 일어나기를 소망한다.

FAITH & LIFE

 글쓴이 김은진



캐나다 예술대학 OCAD University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시각디자인학부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학부 때는 작품 내에 영성을 표현하는 데 관심이 많았고, 현재는 그것에 더해 '배려의 디자인'에 관심이 많다. 현재 서울대 기독교대학원생 독서모임 멤버이며 서울대학교교회 대학원 예배에 출석 중이다

사랑의교회 청년부 기독교세계관학교 소개



이기호 (사랑의교회 청년부 팀장 목사)



성경에서 발견하는 인간의 역사는 그야말로 세계관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을 ‘다르게’ 바라보는 ‘다른’ 세계관이 침투하였고, 그 ‘다른’ 세계관은 모든 것을 실패로 이끌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그냥 두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실패로 이끄는 ‘다른’ 세계관에 짓눌려 세상에 종살이하는 그 백성을 오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눈을 뜨게 하시고, 보이는 세상 가운데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보는’ 백성들로 세우신다.

이 전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를 흔들리지 않고 얼마나 잘 볼 수 있을 것인가에 성패가 달렸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어떻게 하면 ‘동화’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분리’되지 않으면서도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필자는 청년부들을 섬기면서, 오늘날 청년들의 갈급함이 여기에 있음을 본다. 20대에 외치고 다짐하던 힘찬 구호를 어떻게 실현하며, 30대 일터와 가정과 섬김의 현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무엇을 실천할 것인가?

사랑의교회 청년부는 이러한 세계관 전쟁터에서 살아가는 청년들이 ‘다른’ 세계관이 아니라, ‘성경적’ 세계관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난 2018년도부터 계속해서 연 1~2회 기독교세계관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사랑의교회 청년부 기독교세계관학교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이 올바른 순종인지’를 배우고 묵상하며 실천하기를 결단해 가는 과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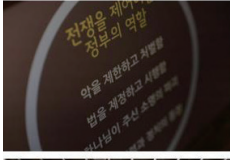
2018년은 ‘과학과 신앙’이라는 주제로 오늘날 과학지상주의적인 시대의 흐름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고민을 함께 나누는 자리를 시작으로 하여, 2019년은 ‘그리스도인, 독립의 길을 걷다’라는 주제로 3.1절 100주년을 맞이하여 독립운동의 길을 걸었던 믿음의 선배들과 선교사들의 모습과 행보들을 배우고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같은 해에 ‘하나님 안에서의 나’, ‘사회 속에서의 나’ 사이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살아가는 청년들을 위해 ‘나, 불안한 시대를 살다’라는 주제로 ‘그리스도인’은 누구이며 ‘나’의 현재는 어떠한지, 그리고 지금 속해있는 사회에서 앞으로 ‘어떻게’ 나를 마주보며 나아가야 할지를 탐색해 보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발걸음은 코로나19가 한참이었던 2020년과 2021년에도 멈추지 않고, 청년부 교역자들을 중심으로 <슬기로운 교회생활>(1, 2)를 진행하며, 전쟁, 재난, 코로나와 같은 인류를 위협하는 위기 속에서 신앙 선배들의 신앙적 고민의 답을 찾아보기도 하였다. 그리고 2022년도에는 신국원 교수와 함께 고독과 고립, 외로움에 있는 지금 세대 청년들의 고민을 성경적 세계관으로 극복하기를 힘쓰며, 계속해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기를 다짐하고 있다.

라브리 공동체에서 프란시스 셰퍼 박사에게 훈련을 받고, 성경적 세계관 운동을 힘있게 펼쳐온 인물 중 하나인 대로우 밀러(Darrow Miller)는 “교회가 세상을 제자 삼지 않으면, 세상이 교회를 제자 삼는다!”라고 역설했다. 오늘날 다시 한번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르게 바라보며 시대를 섬길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세대가 더욱 불길 같이 일어나기를 기도하며 소망한다. **FAITH & LIFE**

사랑의교회 청년부 기독교세계관학교 / 수료자 소감문

마치 센서가 장착되어 알람이 울리듯이 분별할 수 있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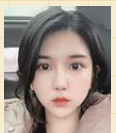


나는 영화와 음악, 그리고 독서가 여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늘 이런저런 다양한 고민을 많이 품고 지내고는 했다. 그러던 중 ‘올바른 문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안내가 담긴 사랑의교회 청년부 기독교세계관학교를 알고 궁금한 마음에 신청하게 되었다. 기독교세계관학교에 참가하면서, 정말 모든 내용이 유익해서 어느 것 하나 인상 깊지 않았던 수업이 없었다. 그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왜 모든 문화에서 동성애가 유행하는가”에 관해 한참 궁금했던 것에서 답을 찾아갔던 시간이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라는 말씀을 통해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는 다섯 가지의 문화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배웠다. 여기에서 ‘번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 우리가 받은 소명으로, 출산을 통해 자녀를 낳아 가족을 이뤄 이 땅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채워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이 새롭게 다가왔다. 또한 공중권세를 잡은 사탄은 하나님의 뜻인 번성을 대적하기 위하여 온 세상에 동성애를 유행시키고 있다는 결론에도 이를 수 있었다. 나에게 청년부 기독교세계관학교는 이렇듯 올바른 기독교 세계관을 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세계관이란 세상을 보는 관점이다. “내가 이 세상을 어떤 관점으로 받아들이고 해석하는가”에 대한 견해이다. 예를 들면 ‘문화’라는 큰 틀에서 대표적으로 영화, 음악, 도서 속에는 모두 작가의 세계관이 담겨 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으나 무분별하게 아무렇게나 작가의 메시지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수많은 예시와 성경 구절을 통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배울 수 있었다. 그리고 모든 세계관의 기초는 성경이어야 하고, 우리는 세상에서 부름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며, 세상 사람과 더불어 살며 그들을 변화시킬 소명이 있기에, 세계관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감사한 시간이었다.

내가 기독교세계관학교에 참가한 후 달라진 부분은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의 잠재의식을 장악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에 대하여 기독교 세계관으로 타락한 세계관을 명확히 인지하고 분별하여, 이제는 세상과 단절하지 않고 세상과 더욱 소통하며 올바른 목소리를 내는 빛과 소금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노력하려 한다. 따라서 앞으로 가정을 이루어 자녀를 양육하게 된다면, 기독교세계관학교 수업을 발판삼아 자녀에게 올바른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쳐줄 수 있도록 항상 깨어 있어 분별하고 싶다는 거룩한 부담을 갖기도 한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엡 6:10)라는 말씀에 기초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마치 센서가 장착되어 알람이 울리듯이 분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신다는 감사 목사님의 말씀이 각인된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이었다. **FAITH & LIFE**



 글쓴이 이연주

사랑의교회 청년 5국 소속 청년

헤르만 도여베르트의 기독교 세계관(2)

- 성경적 창조론



20세기 기독교 세계관 철학자 중, 네덜란드의 헤르만 도여베르트(Herman Dooyeweerd, 1894-1977)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 중 한 분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는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 1837-1920)가 정립한 성경적 세계관의 바탕 위에서 피조 세계를 가장 일관성 있게 설명하려고 시도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철학이 완벽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여러 면에서 그의 철학은 비판을 받았고 동시에 그의 제자들에 의해 더욱 발전되었다. 하지만 적어도 그의 사상은 반드시 한번 검토할 가치가 있다. 대가의 사상을 연구한다는 것은 곧 그가 씨름한 서양 철학 전체를 그의 눈으로 살펴보는 것이고 그가 기독교 철학자로서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에게도 성경적이면서도 비판적 관점들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필자는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기관지 <신앙과 삶>의 '온전한 지성' 지면을 통해, 지난호 도여베르트의 생애와 사상에 대한 간단한 개요를 필두로 5회에 걸쳐 그의 사상과 영향에 대해 간략히 다루어 보겠다.

도여베르트는 카이퍼 연구소에서 그의 사상의 핵심을 이룬 중심 명제, 즉 '이론적 사상의 종교적 뿌리'에 관한 통찰력을 얻은 후 자유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이를 더욱 발전시켰다. 그의 사상적 출발점은 성경의 창조론에 근거한다. 그가 먼저 강조하는 철학적 이념인 '의미'(zin: meaning)는 바로 이 창조적 세계관을 적절히 표현한 것이다. 성경은 만물이 창조되었고 따라서 하나님이 '만물의 근원'(Arche: Origin)이시며 지금도 만물을 다스리시고 궁극적으로 완성하신다고 말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는 모든 실재를 '의미'라고 규정한다.

피조물에 의미가 '있다'라고 하기보다 피조물 자체가 의미'이다'라고 하는 것이 다소 생소하게 들리지만, 그가 이러한 표현을 통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피조물이 자기충족적(self-sufficient) 존재가 아니라 '의미를 부여하시는 하나님'(God as the meaning-Giver)에게 철저히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맥락에서 그는 로마서 11장 36절, 즉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는 말씀에 의미의 목적, 만물의 기원, 존재의 근거, 그리고 궁극적 목적이 분명히 제시되어 있다고 강조한다. 그가 '의미'라는 용어를 도입하는 것은 그리스 철학에서 나온 '존재'(being)라는 단어가 가장 포괄적인 단어로 더는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인간의 이성 및 철학적 사고의 자율성을 절대시한 전통적인 내재철학(內在哲學, immanent philosophy)에서 사용된 '실체'(substance)라는 형이상학적 용어가 너무 독립적인 성격이므로, 이에 대한 기독교적 대안으로 그리스 철학에서 기원한 전통적 형이상학과 존재론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려고 시도함을 볼 수 있다.

나아가 그는 의미로서의 피조계는 혼란스럽거나 임의적인 것이 아니라 잘 정돈되고 구조적인 전체라고

강조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실 때 완전한 지혜로, 창조 질서에 따라 지으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는 실재에는 계획된 구조가 있으며 그 기본 구조를 ‘세 가지 선형적 이념들’(three transcendental ideas)을 사용하여 설명한다. 여기서 ‘선형적’이라는 말은 이러한 이념들이 철학적 사고의 전제가 된다는 의미이다.

첫 번째 이념은 만물의 ‘기원’(Origin)이다. 도여베르트의 경우 만물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대로 창조된 것으로 그분에게 의존한다. 하지만 창조를 부인하는 진화론도 기원에 대한 이념은 있는데 그것은 ‘우연’(Chance)이다. 그리스 철학도 바로 여기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만물의 근원(Arche)이 무엇인지 탐구했다. 두 번째 이념은 모든 현상의 다양한 면들과 양상들의 ‘뿌리가 되는 통일체’(root-unity)이며 ‘의미의 총체’(meaning-totality)이다. 다시 말해 모든 현상이라는 구슬들을 하나로 꿰어 초점을 맞추게 하는 그 통일점을 뜻한다. 그는 이것이 제2의 아담이며 모든 시간내적 실체의 종교적 뿌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서 발견된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각 개인은 존재의 종교적 중심 또는 집중점인 ‘마음’을 통해 이 의미의 총체에 참여한다고 말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념은 ‘우주적 시간으로 연결된 의미의 다양성’(meaning diversity in the coherence of cosmic time)이다. 이것은 의미의 다양한 양상들과 개체 구조들을 뜻하며 이 두 가지는 시간에 의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본다. 그는 이 세 가지 요소를 처음에는 ‘법이념’(wetsidee: cosmonomic idea 또는 the idea of law)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그가 원래 법철학자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하나님의 창조에는 창조의 ‘법’ 또는 ‘질서’가 있음을 암시한다. 그러나 나중에 그는 이 용어를 수정하여 ‘선형적 기본 이념(transcendental grondidee: transcendental ground idea)’이라고 불렀다. 그에 의하면 모든 철학과 학문은 이러한 ‘법이념’을 형성하는 ‘전이론적 전제들’(pre-theoretical presuppositions)에 의존되어 있다. 즉 이 세 가지 이념들은 모든 학문 활동에 필요한 전제들이라는 것이다.

나아가 그는 피조계에서 두 가지 기본 구조를 구별한다. 즉 ‘개체 구조’(individuality structure)와 ‘양상 구조’(modal structure)이다. 전자는 창조로 주어진 구체적 사물의 법적 질서를 뜻하며, 후자는 각 의미의 핵을 가진 특정 양상을 의미한다. 그는 볼렌호브와 함께 이 ‘실재의 양상 이론’(the theory of modal aspects of reality)을 발전시켜 각기 독특한 법칙들에 따라 지배받는 15가지의 ‘법칙 양상들’(wetskringen: law-spheres, modal aspects)을 구별했다. 즉 수적, 공간적, 운동적, 물리적, 생물학적, 감각적, 분석적, 역사적, 언어적, 사회적, 경제적, 미적, 법적, 윤리적, 그리고 신앙적 양상이다. 그는 각 양상이 서로를 지시하며 하나의 정합성(coherence)을 이루어 의미의 총체성을 지향하고 이것은 다시 만물의 기원을 향한다고 말한다. (다음 호에 계속). **FAITH & LIFE**



글쓴이 최용준



한동대 ICT 창업학부 교수이다. 서울대 사회복지학과(B.A.), 미국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M.Div.), 네덜란드 자유대학교(Drs.), 남아공 포체스투름대학교(Ph.D, 기독교철학)에서 공부했다. 독일 쾰른한빛교회와 브뤼셀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동대 학문과신앙연구소 소장을 역임했다. 저서로 <도전하는 현대의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 강의>, <세상을 변화시키는 학문> 등이 있다. 현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실행위원으로도 섬기고 있다.

그리스도인, 인공지능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제4회 기독교대학원생 독서 나눔 콘서트’에 대하여

‘제4회 기독교대학원생 독서 나눔 콘서트’가 “그리스도인, 인공지능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의 후원으로, 6개 대학 약 50명의 대학원생이 함께 모인 가운데, 지난 2월 10일(금) 저녁 7시부터 11일(토) 낮 1시까지 서울대학교(온라인 병행)에서 있었다.



첫째 날(2월 10일 금요일 저녁)의 첫 순서는 간단한 오프닝 행사였는데, 석종준 목사(서울대 캠퍼스의 선교사)의 사회로 박동열 교수(서울대 기독교수회 총무, 실행위원장)의 환영사, 신국원 박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장)의 축사, 이호수 박사(SK ICT 총괄 사장)의 축사, 장수영 교수(포항공대 산업경영공학과, 이사)의 시작을 알리는 대표 기도로 진행되었다.

이어서 두 번째 순서는 김다빈 형제(서울대 기계공학부 박사과정, 서울대 기독교대학원생모임 대표)의 사회로 지정 도서 존 레녹스(John C. Lennox)의 <2084 : 인공지능과 인류의 미래>(2020)를 대학원생 6명의 발제를 통해 함께 정리하고 전체가 자유토론을 하는 시간이었다. 특히 이번 지정 도서의 저자 존 레녹스는 씨 에스 루이스(C. S. Lewis) 이래 가장 탁월한 기독교 변증가 중 한 명으로 평가된다. 이 책에서 자신의 전공인 수학과 과학철학의 탄탄한 기반은 물론이고 평소 정평이 나 있는 깊고도 광범위한 인문학적 식견을 적절히 사용하여 인공지능에 대한 친절한 안내와 더불어 기독교적 통찰을 탁월하게 드러냈다고 알려져 있기에 더욱 기대를 높였다. 발제자와 함께 나는 책의 주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임승찬 형제(카이스트 컴퓨터그래픽 박사과정)의 1장 ‘새로운 영역에 대한 탐구’와 2장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채민석 형제(서울대 기계공학부 박사과정)의 3장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와 4장 ‘좁은 의미의 AI : 우리의 미래는 희망적인가?’, 조예상 형제(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조교)의 5장 ‘좁은 의미의 AI : 결국 미래는 희망적이지 않은 것인가?’와 6장 ‘인간 업그레이드’, 이예원 자매(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석사과정)의 7장 ‘범용인공지능(AGI) : 우리의 미래는



어두운가?’와 8장 ‘창세기의 기록 : 인간이란 무엇인가?’, 권미영 자매(성균관대 교육철학 박사과정)의 9장 ‘도덕관념의 기원’과 10장 ‘지정한 호모 데우스’, 이정식 형제(경희대 문화콘텐츠 석사과정)의 11장 ‘미래 쇼크 : 신으로 불린 한 남자의 재림’과 12장 ‘요한계시록의 호모 데우스’ 등이다.

둘째 날(2월 11일 토요일 오전)은 윤현준 교수(숭실대 기계공학부, 실행위원)의 사회로, 우리나라 AI 기술산업 현장의 대표적인 전문가이자 신실한 그리스도인인 이호수 박사와 이유한 박사(카카오브레인 신약개발 팀장)의 연속 특강, 조별 그룹 토론과 나눔 시간, 두 분의 특강에 대한 전체 참가자들의 자유로운 질의와 두 패널의 답변 순서로 진행되었다.

요즘 바쁘지 않은 대학원생들이 어디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 청년 지성들이 앞으로 AI와 공존할 세상에 대한 기대와 우려 속에서 기꺼이 시간을 내었다.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다양한 자기 전공의 관점을 토대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풀어가는 시간은 그야말로 콘서트 내내 흥미진진하고 행복한 시간이었다. 특별히 대전에서 먼 길을 달려온 카이스트와 충남대 형제자매들, 그들을 차량 운행으로 친히 섬겨주신 장감덕 목사(카이스트 교회)의 열정과 수고도 모두가 함께 기억하고 공유할 잊을 수 없는 일로 기억된다. 또한 첫째 날 행사를 마치고 난 후 참여자 숙소에서 있었던 일도 흥미로웠다. 남학생 숙소였던 서울대 기독교 회관에서 모인 10여 명, 여학생 숙소였던 삼광고회 게스트하우스에 모인 7명은 모두 각 장소에서 서로 처음 만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유쾌한 분위기 속에서 후속 토론과 교제 이야기를 새벽 3시가 넘도록 이어갔다는 것이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제4회 기독교대학원생 독서 나눔 콘서트’가 여러 다양한 손길의 자발적 힘을 모은 풍성한 품앗이 잔치였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겨자씨 같은 준비였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새들이 깃들 만한 큰 나무로 자라게 주셨다. 섭외비 없이 최고의 A.I. 특강 강사와 패널을 보내주시고, 서울대 기독교 회관과 삼광고회 게스트하우스라는 만족스러운 숙소, 풍성한 간식과 식사 후원, 학생들의 다양한 달란트와 섬김을 통한 자발적 수고 등 나누고 싶은 간증 내용이 정말 많았다. 수많은 젊은 영혼들이 이 젊은 그리스도인 지성들의 잔치를 위해 모두 함께 하나님께 드려진 산 제물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를 기쁘게 받으셨다. 영성과 지성이 건강하게 자라가고 있는 이 청년들이야말로 우리 사회와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진정한 불씨이며, 장차 다시 이 땅에 부흥을 위해 예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축복의 통로이자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한다. **FAITH & LIFE**

2023년 기독교학문연구회 춘계학술대회 개최 안내

주제 : 기독교인, ChatGPT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일시 : 2023년 06월 10일(토) 10~18시 (대학원생 발표 : 10~12시)

장소 : 배재대학교 국제교류관(G401)

주제강의 1 ChatGPT를 탄생시킨 언어생성, 인공지능 기술 동향 / 권오욱 박사(한국전자통신연구원)

주제강의 2 ChatGPT의 뇌 인지 신경 과학적 함의 / 박해정 교수 (연세대학교 의학과)

주제강의 3 ChatGPT와 함께하는 종교의 미래 / 김정형 교수 (연세대학교 신학과)

주제강의 4 리걸테크, ChatGPT와 기독교 / 고세일 교수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청년 미디어 아카데미(8주 과정) 안내

일시 : 2023년 7월 4일~8월 29일(매주 화요일, 8주간)

강의 : 촬영 기초(사진(3주), 기획(1주), 디자인 커뮤니케이션(1주), 편집 기초(2주), 비전 나눔(1주)

장소 : CTS 빌딩 9층, 모집인원: 15명(만 40세 미만)

주최 :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KWMA

주관 : Next M, 한국거점미디어 M센터, KWMA 문화예술선교 실행위원회

‘제4회 기독교대학원생 독서나눔콘서트’ 후원(2023년 2월 10~11일)

주제 : ‘그리스도인, 인공지능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장소 : 서울대학교 사범대 11동 107호(& 온라인)

* 1부(2/10, 금, 19:30~22:30) : <2084>(존 레녹스)의 발제(6명) 및 자유토론(50여 명 참가)

* 2부(2/11, 토, 10:00~12:30) : 특강 - ‘A.I 기술사업 어디까지 왔나?’(이유한 박사, 이호수 박사)

등재학술지 <신앙과 학문> 28권1호(2023년 3월 31일 발간)

이월 게재논문 3편과 17편의 논문 투고 중 11편 등 총 14편의 논문이 게재될 예정이다.

(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조직 및 임원

사단법인 이사회

명예 이사장 손봉호(서울대 명예교수)

이사장 신국원(충신대 명예교수)

이 사 박문식(한남대 교수), 박영주(미드웨스턴 신학대 교수), 유재봉(성균관대 교수), 최현일(샘병원 의사), 양성만(우석대 교수), 조성표(경북대 교수), 장수영(포항공대 교수), 정희영(충신대 교수), 최태연(백석대 교수), 오정호(새로남교회 목사)

감 사 김태환(명지대 교수), 문준호(코아시아옵틱스 연구위원)

실행위원회(*표기는 신임, 임기 : 2023.01.30.~2025.01.29.)

실행위원장 박동열(서울대 교수)

실행위원 강진구(고신대 교수), 김기현(로그스서원 대표), 김미영(사람과삶 대표), 김예원(VIEW 간사), 김지원(백석대 교수), 김혜정(CUP 대표), *김태환(명지대 교수), 문준호(코아시아옵틱스 연구위원), 석종준(서울대 캠퍼스 선교사), *이병주(기독교불가회 대표), *안승범(경희대 교수), 이상민(교육학자), 유경상(CTC 대표), 윤현준(숭실대 교수), 이재희(가천대 교수), 장슬기(높은뜻씨앗스쿨 교감), *조예상(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조교), 최용준(한동대 교수), 황혜원(청주대 교수)

기독교학문연구회

학회장 김태환(명지대 교수)

연구부학회장 고세일(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학술부학회장 김지원(백석대 교수)

기획부학회장 김철수(조선대 교수)

총 무 오민용(스마트스디지털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감 사 류현모(서울대 교수), 이명현(인천대 교수)

<신앙과 학문> 편집위원장

박해일(경희대 교수, 뇌과학)

<신앙과 학문> 편집위원

권오병(경희대 교수, 경영학), 김동혁(연세대 교수, 구약학), 김성원(서울신대 교수, 조직신학), 김철수(조선대 교수, 영문학), 박원곤(이화여대 교수, 국제어문학), 송재일(명지대 교수, 법학), 신용철(숭실대 교수, 서양철학), 안소영(경상대 교수, 국제경제학), 엄동한(부산대 교수, 물리교육학), 이은실(한동대 교수, 교육학), 임춘택(제주대 교수, 독문학), 조은주(고신대 교수, 간호학), 허계형(충신대 교수, 유아교육학), 황혜원(청주대 교수, 사회복지학)



▶ VIEW(전성민 대표)

1) VIEW(Vancouver Institute for Evangelical Worldview, 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 Academic Programs 안내

- Master of Arts - Christian Worldview Studies (Korean) 기독교 세계관 문학석사
졸업 이수 학점: 53학점(2.5~3년)
- M.Div in Worldview and Peace Studies (Korean) 세계관 및 평화학 목회학석사
이수 학점 및 예상 수강기간: 89학점 / 3.5~4년
- Graduate Diploma-Christian Worldview Studies (Korean) 기독교 세계관 디플로마
졸업 이수 학점: 35학점(1.5~2년)
- 온라인과정 : 밴쿠버 전일제 학생 등록이 어려운 분들은 한국이나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VIEW 과정을 수강 및 졸업할 수 있다.
※ 입학 안내 및 프로그램의 자세한 내용은 대학원 홈페이지(view.edu)를 참고하기 바란다.

※ 2023 학교 설명회: 6월 19일(월) 오후 6~8시. 장소: 남현교회(서울 구로구 경인로 346)

▶ CTC(유경상 대표)

1) CTC 온라인 사역(3월 개강)

- 기독교세계관교육 지도자 과정 : 4기 기본과정, 3기 강사과정
- 부모 교육 : '월드뷰패밀리아카데미'(기독교세계관으로 <살롯의 거미줄> 읽기)
- 다음 세대 교육 : '하이세 아카데미'(미디어세계관학교), 어린이 & '청소년 월드뷰패밀리아카데미'(살롯의 거미줄)

2) CTC 교회 사역(3월 개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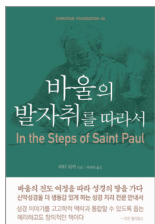
- 삼일교회(송태근 담임목사) : '미디어세계관학교'
- 성광교회(남세주 담임목사) : '성품세계관학교'
- 수영로교회(이규현 담임목사) : '생각코칭 세미나', '부모교사세계관학교'

3) CTC 캠퍼스 사역(3월)

- 아신대학교 <기독교세계관> 과목 강의
- * 신청 및 문의 : CTC 사무국(010-9326-8439) & 홈페이지(www.ctcworldview.com)

▶ 도서출판 CUP(김혜정 대표)

신간 소개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서〉 피터 위커 지음 | 박세혁 옮김 | 580면 | CUP

바울의 전도 여정을 따라 성경의 땅을 가다

신약성경을 더 생동감 있게 하는 성경 지리 전문 안내서

역사와 지리, 고고학을 탁월하게 융합한 최고의 성경 지리 안내서

성경을 시간과 공간 속에서 더 입체적으로 읽게 하는 흥미진진한 참고서

성경 이야기를 고고학적 맥락과 통합할 수 있도록 돕는 예리하고도 창의적인 책이다

— 헨리 톰슨

바울의 선교 여정을 따라 설교하고 성경 공부를 인도했던 나로서도 다시금 이 책을 통해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고 그 운동력이 어떻게 지금도 내 가슴을 뛰게 만드는지를 실감하게 한다. 재미있다. 바울의 여정을 따라가고픈 열정이 솟구친다.

— 류호준 | 한국성서대학교 구약학 초빙교수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재정보고 (2023년 1월, 2월결산)

수입 항목	세부 항목	2023년 1월	2023년 2월	지출 항목	세부 항목	2023년 1월	2023년 2월
경상수입	이사회비	700,000	2,900,000	인건비	일반급여	5,300,000	5,300,000
	임원회비	530,000	650,000		기타급여	1,450,000	400,000
	일반회비	4,070,000	4,945,000		소계	6,750,000	5,700,000
	기관후원금	2,650,000	4,800,000	경상비	사무실관리비	482,777	496,455
	월드뷰후원금	0	0		통신비	393,976	159,889
	사무실후원금	0	0		우편료	4,000	12,340
	CTC후원금	60,000	50,000		소모품비	0	4,460
	VIEW후원금	1,165,000	930,000		비품	0	500,000
	기타후원금	0	0		식비	400,500	371,000
	월보구독료	504,500	577,500		수선비	0	0
	학술지원금	0	0		복리후생비	792,430	848,630
	세계관사역지원금	0	0		퇴직연금	266,631	250,750
	기타	0	0		컴퓨터	69,170	0
					회의비	29,780	0
					회계용역비	385,000	55,000
					서무비	121,000	121,000
기타수입	소계	9,679,500	14,852,500		기타(지급수수료)	141,840	137,925
	일반이자	0	0	연구지원비	소계	3,087,104	2,957,449
	법인이자	0	0		CTC후원금	59,725	59,725
	법인세환급금	0	0		VIEW후원금	1,214,825	1,165,045
	기타수입	0	0	출판(회지)	소계	1,274,550	1,224,770
	기금차입	0	0		인쇄비	0	2,570,761
	결산이자	0	0		발송비	0	605,670
	예수금	412,100	412,100		홈페이지/홍보비	0	0
	소계	412,100	412,100	기타	소계	0	3,176,431
세계관아카데미	세계관일반등록	0	0		세금	48,390	205,320
	세계관기타수입	0	0		잡비	16,470	0
	소계	0	0		소계	64,860	205,320
				세계관아카데미	세계관강사료	0	0
학회	학회이사회비	160,000	160,000		세계관행사준비	0	571,090
	학회행사수입	0	0		소계	0	571,090
	자료집판매	0	0	학회	학회장소사용료	0	0
	학회지판매	0	0		학회자료제작비		0
	학술지심사비	0	0		학회홍보및기타	0	0
	학술지게재료	0	0		학술지인쇄비	2,051,835	0
	저작권료	0	0		학술지발송비	813,810	0
	학회기타수입	0	0		학술지심사료	0	0
	소계	160,000	160,000		학회조교비	0	0
					학회기타	0	0
					소계	2,865,645	0
전월 미수금	전월 CMS입금	1,125,150	1,031,580	차월이월 수입금	이달 CMS미수금	1,031,580	4,547,405
	전월 이니시스입금	0	210,000		이달 이니시스 미수금	210,000	0
	소계	1,125,150	1,241,580		소계	1,241,580	4,547,405
당월 수입액		11,376,750	16,666,180	당월 지출액		15,283,739	18,382,465
전월 이월액		36,256,117	32,349,128	차월 이월액 (잔액)		32,349,128	30,632, 843

* CMS등 입금여부를 명시하여 당월 현금시제와 재정보고서 금액이 일치합니다.

* CMS 30일자 출금자는 3월 2일 출금되었으므로 2월에 명단에 없을 수 있습니다.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회원후원

(2023년 1월)

3천 김성권, 3천5백 광도명, 김봉현, 김셋별, 김성욱, 김성호, 김정원, 김형근, 김희원, 생명의강, 손영일, 장재수, 장현정, 전은경, 조성진, 주성택, 지경순, 진성자, 최원길, 하태실, 5천 강대용, 공승건, 구성덕, 권지연, 김경희, 김기웅, 김기현, 김대용, 김상욱, 김성찬, 김승택, 김정명, 김정식, 김태영, 노승욱, 박광제, 박해조, 범경철, 손영경, 송시성, 신종철, 오경숙, 유충열, 윤종선, 이경미, 이기훈, 이길수, 이택재, 이수인, 이원재, 이인수, 이종혁, 이지영, 이항숙, 임소연, 임형준, 장현일, 전보규, 정진우, 최광수, 최동희, 최수아, 최연우, 최영태, 한배선, 홍승기, 7천5백 강찬진, 박상근, 박성태, 방성기, 백예은, 손화정, 이경우, 이은수, 전영식, 전영규, 1만 강연정, 강연희, 강은정, 강혜영, 고길현, 고선욱, 고세일, 고철웅, 고철용, 권경호, 기민식, 김원평, 김경진, 김경호, 김광태, 김규욱, 김남진, 김노동, 김도형, 김동원, 김막이, 김민성, 김병국, 김병재, 김병철, 김봉수, 김봉애, 김상법, 김성욱, 김셋별, 김성구, 김성인, 김성진, 김세경, 김수빈, 김수진, 김수홍, 김신정, 김아람, 김아론, 김연진, 김영규, 김영숙, 김영운, 김영호, 김용성, 김유니스, 김윤권, 김은덕, 김은태, 김재근, 김재원, 김재정, 김정준, 김정철, 김정호, 김종원, 김종일, 김종철, 김좌남, 김주영, 김지근, 김진성, 김철수, 김태룡, 김혁, 김현정, 김혜정, 김혜정, 김홍빈, 김화선, 남순우, 라영환, 류지호, 류진호, 류현모, 류화원, 마민호, 모상근, 모아론, 박동현, 박상희, 박승호, 박시운, 박안나, 박원근, 박은주, 박준모, 박지현, 박진규, 박현민, 박혜경, 박희주, 배아론, 배지연, 백경은, 백요한, 백은석, 부천평안교회, 빛과소금교회, 사호행, 서선정, 서화진, 성기진, 성영은, 소진희, 손하은, 손현탁, 송아영, 송은희, 송철호, 신성만, 신현정, 신현주, 신호기, 심은희, 안병열, 안석, 안성희, 안승범, 양성근, 양성철, 양승규, 양행모, 양혜영, 양희석, 연혜민, 엄동한, 오성호, 오익석, 오주희, 유건호, 유기남, 유상원, 유상한, 유승민, 유영대, 유영준, 유재은, 유해무, 윤상현, 윤숙자, 윤영배, 윤재림, 윤태형, 윤현준, 윤혜림, 이강, 이경직, 이길형, 이노운, 이다니엘, 이명동, 이명록, 이명진, 이명현, 이병수, 이병주, 이봉근, 이상수, 이상진, 이상희, 이상진, 이선복, 이상근, 이상미, 이상수, 이세정, 이수연, 이순진, 이승엽, 이시영, 이아름, 이언구, 이연의, 이영미, 이요한, 이용훈, 이원도, 이원준, 이윤석, 이윤재, 이윤정, 이윤택, 이윤희, 이은미, 이정기, 이정나, 이정옥, 이정일, 이종철, 이종실, 이지연, 이진희, 이창우, 이창훈, 이혜리, 이행로, 이희진, 이희찬, 임동진, 임상희, 임수목, 임지연, 임춘택, 장경근, 장승기, 장승화, 장은혜(양종태), 장창수, 장태준, 전명희, 전성규, 정다운, 정동관, 정봉현, 정선경, 정영수, 정우성, 정이레, 정재식, 정현주, 정희원, 제양규, 조경덕, 조명자, 조미연, 조성환, 조성국, 조성국, 조승희, 조영우, 조예상, 조은주, 조은향, 조이수, 조주영, 조현웅, 조현우, 조현지, 조혜선, 지의정, 차봉준, 채일, 채희석, 최대규, 최삼열, 최상두, 최성호, 최은정, 최준빈, 최한민, 최혜정, 추명순, 추진연, 하성만, 하재희, 하현진, 한동빈, 한미영, 한신영, 한화진, 한희수, 허선아, 허연, 허현, 홍구하, 홍요셉, 홍정석, 홍종진, 홍판석, 황기철, 황도용, 황상준, 황성연, 황세환, 황에스더, 황의찬, 황혜숙, 1만5천 Miya Toshiko, 김신화, 김준원, 박정호, 2만 강유남, 김보경, 김용식, 김인수, 김정옥, 김태진, 박기모, 박홍식, 송찬호, 안선자, 오성수, 우시정, 유경상, 이근, 이기서, 이연우, 장인석, 정훈, 채기현, 최현중, 허정도, 황혜정, 2만5천 한윤식, 3만 강진구, 김경민, 김대인, 김동원, 김두환, 김정철, 김예원, 김용동, 류동규, 문준호, 박신현, 박종국, 배덕만, 서성록, 손화철, 송인규, 송태현, 신해경, 이근호, 이은실, 전상훈, 정민, 최동진, 최용준, 추태하, 황영철, 황정진, 황혜원, 4만 문석운, 우병훈, 5만 강다영, 김영주, 김중우, 김택호, 손정열, 양승훈, 윤석찬, 윤원철, 이대경, 이상민, 전희경, 정은애, 조득정, 조창희, 황준용, 6만 석종준, 송종철, 정미란, 홍창현, 10만 김미영, 김태훈, 박영주, 송봉호, 신국원, 장수영, 장점연, 최태연, 12만 김민철, 박문식, 최원길, 황태연, 15만 최현일,

계 7,179,500원

기관후원

5만 고양제일교회(VIEW후원), 고제교회, 다은공동체교회, 일원교회, 6만 아신대학교도서관, 10만 강남교회, 개동교회, 계산제일교회, 금성교회, 남서울은혜교회, 더세움교회, 상대원침례교회, 새로남교회, 서울영동교회, 성의교회, 예수항남교회, 예성교회, 중앙제일교회, 천안중앙장로교회, 20만 남서울교회, 삼일교회, 30만 100주년기념교회, 분당우리교회,

계 2,660,000원

전체 9,839,500원

회원후원

(2023년 2월)

3천 김성권, 3천5백 광도명, 김봉현, 김셋별, 김성욱, 김성호, 김정원, 김형근, 김희원, 생명의강, 손영일, 장재수, 장현정, 조성진, 주성택, 진성자, 최원길, 하태실, 5천 공승건, 권지연, 김경희, 김기웅, 김기현, 김대용, 김상욱, 김승택, 김정명, 김정식, 김태영, 노승욱, 박광제, 박해조, 범경철, 손영경, 송시성, 신종철, 오경숙, 유충열, 이경미, 이기훈, 이길수, 이택재, 이수인, 이원재, 이인수, 이종혁, 이지영, 이항숙, 임소연, 임형준, 장현일, 전보규, 정진우, 최광수, 최동희, 최수아, 최연우, 최영태, 한배선, 홍승기, 7천5백 강찬진, 방성기, 백예은, 손화정, 이경우, 이은수, 전영식, 전영규, 1만 강연정, 강연희, 강은정, 강혜영, 고길현, 고선욱, 고철웅, 권경호, 기민식, 김원평, 김경진, 김경호, 김광태, 김규욱, 김남진, 김노동, 김도형, 김동원, 김막미, 김민성, 김병국, 김병재, 김병철, 김봉수, 김봉애, 김상법, 김성욱, 김셋별, 김성구, 김성인, 김성진, 김세경, 김수빈, 김수진, 김수홍, 김신정, 김아람, 김아론, 김연진, 김영규, 김영숙, 김영운, 김영호, 김용성, 김유니스, 김윤권, 김은덕, 김은태, 김재근, 김재원, 김재정, 김정준, 김정철, 김정호, 김종원, 김종일, 김종철, 김좌남, 김주영, 김지근, 김진성, 김철수, 김태룡, 김혁, 김현정, 김혜정, 김혜정, 김홍빈, 김화선, 남순우, 라영환, 류지호, 류진호, 류현모, 모상근, 모아론, 박동현, 박상희, 박승호, 박시운, 박안나, 박원근, 박은주, 박준모, 박지현, 박진규, 박현민, 박혜경, 박희주, 배아론, 배지연, 백경은, 백요한, 백은석, 부천평안교회, 빛과소금교회, 사호행, 서화진, 성기진, 성영은, 소진희, 손하은, 손현탁, 송아영, 송은희, 송철호, 신성만, 신현정, 신현주, 신호기, 심은희, 안병열, 안성희, 안승범, 양성근, 양성철, 양승규, 양행모, 양혜영, 양희석, 연혜민, 엄동한, 오성호, 오익석, 오주희, 유건호, 유기남, 유상원, 유상한, 유영대, 유영준, 유해무, 윤상현, 윤숙자, 윤영배, 윤재림, 윤태형, 윤현준, 윤혜림, 이강, 이경직, 이길형, 이다니엘, 이명동, 이명록, 이명진, 이명현, 이병수, 이병주, 이봉근, 이상수, 이상진, 이상희, 이선복, 이상근, 이상미, 이상수, 이세정, 이수연, 이순진, 이승엽, 이시영, 이아름, 이언구, 이연의, 이영미, 이요한, 이용훈, 이원도, 이원준, 이윤석, 이윤재, 이윤정, 이윤택, 이윤희, 이은미, 이정기, 이정나, 이정옥, 이정일, 이종철, 이종실, 이지연, 이진희, 이창우, 이창훈, 이혜리, 이행로, 이희진, 임동진, 임상희, 임수목, 임지연, 임춘택, 장경근, 장승기, 장승화, 장은혜(양종태), 장창수, 장태준, 전명희, 전성규, 정다운, 정동관, 정봉현, 정선경, 정영수, 정우성, 정이레, 정재식, 정현주, 정희원, 제양규, 조경덕, 조명자, 조미연, 조성환, 조성국, 조성국, 조승희, 조영우, 조예상, 조은주, 조은향, 조이수, 조주영, 조현웅, 조현우, 조현지, 조혜선, 지의정, 차봉준, 채일, 채희석, 최대규, 최삼열, 최상두, 최성호, 최은정, 최준빈, 최한민, 최혜정, 추명순, 추진연, 하성만, 하재희, 하현진, 한동빈, 한미영, 한신영, 한화진, 한희수, 허선아, 허연, 허현, 홍구하, 홍요셉, 홍정석, 홍종진, 홍판석, 황기철, 황도용, 황상준, 황성연, 황세환, 황에스더, 황의찬, 황혜숙, 1만5천 김신화, 김준원, 박정호, 2만 김보경, 김용식, 김인수, 김정옥, 김태진, 박기모, 박홍식, 송찬호, 안선자, 오성수, 우시정, 유경상, 이근, 이기서, 이연우, 이종훈, 장인석, 전윤조, 정훈, 채기현, 최현중, 황혜정, 2만5천 한윤식, 3만 고세일, 김경민, 김대인, 김동원, 김두환, 김정철, 김예원, 김용동, 류동규, 문준호, 박신현, 박종국, 배덕만, 서성록, 손화철, 송인규, 송태현, 신해경, 이근호, 이은실, 잡지협회, 전상훈, 최동진, 최용준, 추태하, 황영철, 황정진, 4만 문석운, 우병훈, 5만 강다영, 김영주, 김중우, 김택호, 손정열, 양승훈, 윤석찬, 윤원철, 이대경, 이상민, 전희경, 정은애, 조창희, 6만 강영택, 권태경, 김성수, 김성원, 박영진, 석종준, 송종철, 신동현, 이국운, 이란, 임영미, 전병국, 정덕희, 정문선, 7만 손창민, 10만 김미영, 김태환, 박영주, 신국원, 장수영, 장점연, 최태연, 12만 김민철, 김성현, 심정연, 지상선, 최희용, 홍승현, 15만 최현일, 50만 김신화, 120만 양성만, 유재봉,

계 10,842,500원

기관후원

5만 고양제일교회(VIEW후원), 고제교회, 다은공동체교회, 새연약교회, 일원교회, 6만 장로회신학대학교도서관, 충신대학교도서관, 10만 강남교회, 개동교회, 계산제일교회, 금성교회, 남서울은혜교회, 더세움교회, 상대원침례교회, 새로남교회, 서울영동교회, 성덕교회, 성의교회, 예수항남교회, 예성교회, 중앙제일교회, 천안중앙장로교회, 20만 남서울교회, 로고스교회(김기현), 삼일교회, 한돌교회, 30만 100주년기념교회, 분당우리교회, 80만 수영로교회, 90만 반쿠비히독교세계관대학원,

계 4,170,000원

전체 15,012,500원

회원 여러분들의 귀한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후원계좌
국민은행 602-01-0667-971 (예금주: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편집위원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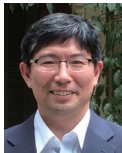
발행인	손봉호	서울대 명예교수
편집장	신국원	총신대 명예교수, 이사장
편집위원	김대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서울대 Ph.D, 실행위원
	김반석	서울대 사회학과 석사 졸업, 도쿄대 인문사회계연구과 박사과정
	김유준	서울 주빌리교회 담임목사, 교회사, 연세대 Ph.D, 연세대 연구교수, 캠퍼스 사역전문가
	김혜정	도서출판 CUP 대표, 실행위원
	문준호	코아시아옵틱스 연구위원, 물리학, 카이스트 Ph.D, 실행위원
	박동열	서울대 교수, 언어학, 파리소르본대학교 Ph.D, 실행위원장
	박영주	미드웨스턴 신학대학 교수, 교육학, 컬럼비아 인터내셔널 대학교, Ph.D, 이사
	박진규	서울여대 교수, 미디어와 문화학, 콜로라도대, Ph.D, 실행위원
	박흥식	서울대 교수, 서양사, 괴팅엔대 Ph.D, 前 100주년기념교회 양화진문화원장
	석종준	서울대 캠퍼스선교사, 조직신학, 침신대 Ph.D, 기획위원장
	양성만	우석대 교수, 서양철학, 고려대 Ph.D, 이사
	윤현준	송실대 교수, 기계공학, 서울대 Ph.D, 실행위원
	이병주	기독교법률가회(CLF) 대표, 변호사, 하바드대 로스쿨 석사, 실행위원
	이상민	번역가, 교육학, 서울대 Ph.D, 실행위원
	장수영	포항공대 교수, 적정기술학, 미시간대 Ph.D, 이사
	전명희	한동대 교수, 사회복지학, 연세대 Ph.D, 정회원
	조성표	경북대 교수, 재무회계학, 연세대 Ph.D, 이사
	최태연	백석대 교수, 철학, 베를린 자유대 Ph.D, 이사
	최현일	샘병원 의사, 연세대 Ph.D, 이사
	추태화	이레문화연구소장, 문학, 아우그스부르크대 Ph.D, 정회원
	황영철	수원 성의교회 담임 목사, 신약학, 영국 서리대 Ph. D, 정회원
편집실무자	석종준	사무국



손봉호



신국원



김대인



김반석



김유준



김혜정



문준호



박동열



박영주



박진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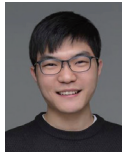
박흥식



석종준



양성만



윤현준



이병주



이상민



장수영



전명희



조성표



최태연



최현일



추태화



황영철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세요. 카카오톡: ID “가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메일 : info@worldview.or.kr / 후원신청은 홈페이지로도 가능합니다. www.worldview.or.kr

신청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이메일
주소	

후원금액 및 방법 선택

후원금액	☐ 1만원	☐ 2만원	☐ 3만원	☐ 5만원	☐ 기타 (원)
후원방법	☐ 매월 CMS 자동이체		☐ 매월 직접 입금	☐ 연후원금(12개월 분) 일시 납부	

CMS 신청자만 기록해주세요. ※ 신청자와 예금주가 다른 경우, 필히 예금주의 연락 가능한 휴대폰 번호를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	이체일 □ 25일 □ 30일
예금주와의 관계	예금주 휴대전화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생년월일 / 사업자(고유)번호	

아래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동의를 잘 읽고 **동의함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자동이체 신청이 완료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 CMS 출금이체 및 휴대전화 합산 청구를 통한 요금 수납
 - 수집항목 (개인정보) : 성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 이용 동의일 부터 CMS 출금이체 및 휴대전화 합산청구 종료일(해지일)까지
 - 신장자는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동의함** □ **동의안함** □ (고유식별정보) **동의함** □ **동의안함**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 씨엠에스코리아** □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 ㈜효성에프엠에스 □ 이지스엔터프라이즈(주)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CMS프로그램 제공, CMS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CMS출금이체 및 휴대전화 한산청구로 출금동의 확인 목적을 달성할 때 까지
 - 신장자는 개인정보에 대해 수납기관이 **□ 씨엠에스코리아** □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 ㈜효성에프엠에스 □ 이지스엔터프라이즈(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 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안함 □

[출금이체 동의여부 사실 통지 안내]

CMS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고객님의 (은행 등 금융회사 및 이용기관보유) 연락처 정보를 활용하여 문자메시지로 고객님의 출금이체 동의여부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20 년 유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 결제정보제공자:
(예금주 또는 가입자)

(인) 또는 서명

※ 신청인과 결제정보제공자(예금주 또는 가입자)가 다른 경우, 반드시 결제정보 제공자(예금주 또는 가입자)의 서명을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인, ChatGPT를 어떻게 볼 것인가?

6.10 (토)

10:00~18:00

대학원생

10:00~12:00

장소

배재대학교 국제교류관

G401 (대면중심, 일부 비대면)

주제강연

1. ChatGPT를 탄생시킨 언어생성 인공지능 기술 동향

권오욱 박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 ChatGPT의 뇌 인지 신경 과학적 함의

박해정 교수
연세대학교 의학과

3. ChatGPT와 함께하는 종교의 미래

김정형 교수
연세대학교 신학과

4. 법, ChatGPT와 기독교

고세일 교수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패널토의 사회

박동열 교수
서울대학교 교수 / 실행위원장

분과발표

대학원생, 경제·경영, 인문학, 사회과학, 세계관, 캠퍼스 선교, 공연·예술, 학제간 연구

발표논문 신청 안내

- ▶ 2023.05.06.(토) 신청 마감
- ▶ 2023.05.13.(토) 요약본 마감
- ▶ 2023.05.25.(목) 제출 마감

신청·참가 bit.ly/401BSQd

논문제출 gihakyeon@gmail.com

홈페이지 worldview.or.kr

